

광 고

원양산업

제 1139 호

(2021년 11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케이프타운 협정 영향 및 전망에 대한 공청회 개최 / 4
- 원양업계, 자체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부수어획 저감 조치 마련 / 5
- 해외수산협력센터, 이광세 前 대표 초빙, 교육 실시 / 5
- 원양협회, 원양 어획물 요리 사진 제작 / 6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7

■ 요리 만들기 / 17

(동태찌개)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1년 10월 보고 내용 / 18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라니냐 발생 확률 70~80% / 21
- 아직 방콕 병목현상 징후 없음 / 21
- 태국 3분기 참치캔 수출량 급감 / 22
- 선망선 연료비, 1년만에 최고치 기록 / 22

- PNA FAD 어업, MSC 인증에 가까워져 / 23
- PNG-FIA 어업 MSC 인증, 눈다랑어 포함 / 23
- 日 재무성, 1~9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4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900 엔 돌파 / 25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219 달러 / 26
- 2020년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 / 26
- 인도양 황다랑어 크기, 지난 70년 중 가장 작아 / 27
- 인도양 연안국, IOTC에 dFAD 감축 특별회의 요구 / 27
- 만타 가다랑어 가격, 1,600 달러로 상승 / 28
- 중서부태평양, 동부와 동일한 규칙 따라야 / 28
- IATTC, FAD 감축 합의 / 29
- IATTC, 동부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가 합의 / 29
- 참치 먹으면 조울증 완화? / 30
- CCSBT 남방참다랑어 쿼터 결정 / 30
- 지속가능 FAD '젤리 FAD' 개발 / 31
- 오만, 참치 어획량 증가 / 31
- 식물성 식용유 가격 급등, 참치캔 가공업에 타격 / 32
- 에콰도르 선망선단, 위치추적 정보 공개 / 32
- 日, 원양 가다랑어 어장 AI 예측 시험 진행 중 / 33
- 이란, 참치캔 생산 급증 / 33
- 스페인 OPAGAC, 3대양 참치 MSC 인증 근접 / 34
- 스페인 Calvo 그룹, 지속가능한 참치 조달 발표 / 34

Contents

• 영국 2020년 참치캔 수입 통계 발표	/ 35	• FAO, 어업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 중요성 강조	/ 43
• 프랑스 연승선 3척, 바누아투서 IUU 조업	/ 35	• 러시아 2021년 41주차 부어 어획량 19만 1,000톤	/ 43
• 타이유니온 3분기 참치캔 매출액 감소	/ 36	• 전자상거래, 2025년 세계 수산물 시장 36% 점유	/ 44
• 범블비, 건강 스낵 키트에 새로운 맛 추가	/ 36	• 美 '불법어업-강제노동 방지법' 하원 표결 추진	/ 44
■ 오징어어업 동향		• 미국 수산물 물가 급상승, 연휴 매출은 흔들림 없어	/ 45
• 페루 대왕오징어 가공·수출업체, 새로운 그룹 결성	/ 37	• 미국 향만 병목 현상 여전	/ 45
• 대왕오징어 어획량 감소·가격 하락	/ 37	• H&G 대구 가격 러시아-노르웨이 쿼터 삭감으로 상승	/ 46
■ 명태어업 동향		• Aker Biomarine, 크릴 조업 부진으로 수익 감소	/ 46
• 러시아 명태 자원 데이터, 급격한 어획 감소 경고	/ 38	• 日 기업, 팡가시우스 연육 판매 개시	/ 47
• 8월 기준 러시아 대중국 수산물 수출 72% 감소	/ 38	• 나미비아, 민대구 TAC 4% 감소	/ 47
• GAPP, 연례회의서 실적 보고 및 내년 목표 논의	/ 39	• 노르웨이 43주 고등어·청어 어획량, 양호한 수준	/ 48
• 中 운임 폭등으로 더블프로즌 명태 블록 가격 급등	/ 39	• 2021년 러시아 고등어 어획량, 2배 이상 증가	/ 48
• 러시아 44주차 냉동 어류 가격	/ 40	• 필렛 공정에서 머리, 등뼈 파이프라인 운반	/ 49
• RFC-日 다이사이 장기 연육 공급 계약 체결	/ 40	• 북동 대서양 청어·청대구·고등어 TAC 확정	/ 49
• 美 Trisident, 명태 선상가공 트롤선 매입	/ 40	• 8월 페루 수산 부문 생산액 25% 감소	/ 50
■ 공치어업 동향		• 에콰도르, 보호구역 면적 증대 '보존 스왑' 추진	/ 50
• 日 공치 가격, 높은 수준 유지	/ 41	■ 쉬어가는 난 (시)	
• 日, 냉동 공치 7월 말 재고량 발표	/ 41	• 파도의 말 <이해인>	/ 51
■ 각국 수산 동향		■ 국내 수산 뉴스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합의 문서안 제시돼	/ 42	•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개최	/ 52
• 식물기반 참치 대체식품, 세계적으로 출시 중	/ 42	•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 열린다	/ 52
		•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 받는다	/ 53
		•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	/ 53
		• 올해 총 25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 조성	/ 54
		• 이영호 전 의원,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 54

케이프타운 협정 영향 및 전망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정부, 케이프타운 협정 2022년 10월까지 비준 예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 대응을 위해 '어선안전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케이프타운 협정의 영향 및 전망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 이규선 원양산업과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원산업, 동원수산,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한성기업, 홍진실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신현애 상무와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케이프타운 협정이란 어선의 구조·설비·장치 및 운영 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어선·어선원 안전 보장과 IUU 어업 예방을 위해 IMO(국제해사기구)가 2012년에 채택한 협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내외 케이프타운 협정 추진 경과, 영향분석, 어선관리제도 개선 방안, 협정 대응 및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16개국(1,600척)이 케이프타운 협정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 중국 등 33개국이 2022년 10월 11일까지 비준하기로 서약해 2022년 10월에 발효 요건 22개국 3,600척을 만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협정 발효 시 현존선의 경우 국내 허가톤수 660톤 이상 어선에만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GMDSS(해상조난안전시스템) 무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어선은 VHF 무선전화 2대, 레이더트랜스폰더 1대를 추가로 구비해야해 적당 약 4,000 달러가 추가로 소요된다.

신조선의 경우에는 협정 규정을 적용한 원양오징어



채낚기선의 건조 비용을 분석한 결과 협정 규정 적용으로 인해 약 1억 2,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언급했다.

단, 해당 신조선의 경우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어 추가 설계 비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500톤급으로 제7장 생존정 구조정 규정 적용이 면제(660톤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입어국인 포클랜드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7장이 적용되었다.

해양수산부는 660톤 미만 어선의 경우 건조비가 약 6,000만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계획으로 11월 외교부에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개시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국회심의 및 의결을 2022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협정 적용 시 신조선 건조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선형이 없어 업종별 선형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된 선형의 수정·보완을 통해 최적의 표준 선형을 연구·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양업계, 자체적으로 해양포유동물 부수어획 저감 조치 마련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강화에 따른 조치

우리 원양업계는 자체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의 부수적 어획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키기로 결의했다.

우리 협회는 업계와의 수심 차례 회의를 거쳐 기존에 있는 국제 지침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 현실을 반영한 ‘남서대서양 공해 저연승어업에 대한 혼획저감계획’, ‘원양 참치 연승어선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및 상호작용에 관한 지침’, ‘남서대서양공해 저층트롤어업에 대한 혼획저감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혼획저감계획을 11월 1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우리 업계의 이러한 대응은 미국이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강화해 2023년부터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어업

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국 수산청은 MMPA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해 각 수출국 어업별로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정도를 평가해 해외어업목록(List of Foreign Fisheries, LOFF)을 작성했다. 해당 목록에 면제어업이 아닌 수출어업으로 분류된 어업은 동등성 평가를 통해 미국 부수어획 저감계획과 동등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라고 인정되어야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FAO 41해구 이빨고지저연승, 참치연승, 포클랜드 오징어트롤 어업을 포함해 수출어업으로 분류된 어업(연근해 포함)의 경우 미국에 동등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외수산협력센터, 이광세 前 대표 초빙, 교육 실시 ‘참치 산업의 현장과 원양어업의 갈 길’ 주제로 강의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11월 12일 세종시 토즈 마이스센터에서 이광세 전 신라교역 대표 이사를 초청해 외부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참치 산업의 현장과 원양어업의 갈 길’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교육에서, 이 전 대표이사는 다년간 몸담은 원양산업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과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 등 제3세계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원양어업이 기존의 채포·판매 형태의 사업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제품 이미지 향상 및 브랜드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양협회, 원양 어획물 요리 사진 제작

참치, 오징어, 명태, 꽂치 관련 12가지

우리 협회는 홈페이지 원양 어획물 요리 사진(약 20년 전 제작)을 최신화 하고 SNS 홍보, 원양산업지 내 요리사진, 보도자료, 외부 요청 대응 등에 활용하고자 12가지 요리 사진 제작을 진행했다.

촬영한 요리는 오징어 4가지(오징어볶음, 오징어순대, 통오징어짬뽕, 오징어전), 명태 4가지(동태찌개, 황태구이, 코다리강정, 코다리덮밥), 꽂치 3가지(꽂치김치찌개, 꽂치조림, 꽂치파이), 참치 1가지(참치포케)이다.

동원 F&B와 오션프렌드의 협조로 참치, 이빨고기 레시피 및 사진은 이미 다량 확보해 부족한 레시피 위주로 제작을 추진했다.

우리 협회는 촬영 사진, 레시피 등 결과물을 회원사와 공유하고자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로 송부(11.12)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게시 시 회원사 판매처 QR코드를 같이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회원사는 우리 협회 담당자(02-589-1609, kosfa@kosfa.org)에게 요청 시 QR코드 게시가 가능하다.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022년도 수산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 의뢰(전화원사)
 - 추천대상자: 원양산업 발전 등에 공이 큰 유공자
 - 기념식행사: '22.4.1(금) / 장소 미정
 - * 제출기한: '21.11.17
- 2021 부산국제수산 EXPO 개최식 및 수산정책포럼 참석
 - 일시/장소: '21.11.3, 10:00 / 벅스코
 - 참석자: 협회장, 해외수산협력센터장 등 6명
 - 내용: 내빈 환담회, 전시회 브리핑, 전시장 순람, 수산정책포럼 참석
- '21. 협회비 부과추진
 - 4/4분기 월회비
 - 8, 9월분 업종별회비
 - 5차분 기본운영회비
- 국제수산기구 및 입어협상 환경개선을 위한 전열기구(LED등) 교체 완료
 - 일시/장소: 2021.10.16~17 / 회의실 등
- 협회비 미납업체 "1차경고" 공문 발송
 - 6개월 이상 미납사 8개사
- '21. 8, 9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21.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초세무서)

기획홍보부

- 국정감사 대비 국회의원실 방문
 - 일자/장소: '21.10.19, 10:00 / 국회 윤재갑의원실
 - 참석자: 윤재갑의원실 이인구 보좌관, 동원산업 박상진 본부장 / 협회 기획홍보부 이사
 - 내용: 동원산업, 사조산업 국정감사 관련 사항 질의내용 협의
- 원양산업지 10월호(제1138호) 제작, 발송(315권)
 - 협회소식 5건(원양업계는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오징어채낚기 전문가 초빙 점검,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조 어선 취득세 감면, 원양산업 통계연보 발간, PNG태평양 도서국 투자 설명회)
 - 국내소식 7건, 해외수산정보 52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교정 및 편집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26호 10.13, 127호 10.20, 128호 10.27, 129호 11.3/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26호 정보 15건(日 도요스시장 눈다랑어 중간 가격, 1,100엔 근접/ 日 11월 꽁치 내유량, '낮은 수준' 전망/ 서사하라, EU에 어업협상 초대)
 - 제127호 정보 20건(참치 먹으면 조울증 완화?/ 페루 대왕오징어 가공수출업체, 새로운 그룹 결성 / H&G 대구 가격 쿨터 삭감으로 상승)
 - 제128호 정보 19건(라니냐 발생 확률 70~80%/ 대왕오징어 어획량 감소가격 하락/ WTO 수산보조금 규제, 39개국 예외 적용될 수 있어)

- 제129호 정보 13건(태국 3분기 참치캔 수출량 급감 / 러시아 명태 자원 데이터, 급격한 어획 감소 경고 / 식물기반 참치 대체식품, 세계적으로 출시 중)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 계약

- 발주처 : 협회,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 계약상대자 : 부경대학교 이상고 명예교수
- 계약기간 : 2021.10.12~12.11(2개월)
- 계약 내용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 기대효과, 기능 및 역할, 유사사례 조사

○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관련 업무추진

- 업계 제출 자료 취합 및 검토
- 2022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초안 작성

○ 원양 어획물 요리 레시피 및 사진 제작

- 일시/장소 : '21.11.3
/ 계약업체(핀테이블) 사무실(양재동)
- 참석자 : 요리 및 촬영 전문가 4명,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이사 등
- 내용 : 오징어볶음, 오징어순대, 오징어전, 통오징어 짬뽕, 동태찌개, 황태구이, 코다리강정, 코다리 덮밥, 콩치김치찌개, 콩치조림, 콩치파이, 참치포케 총 12가지 요리 및 촬영

○ '21년 9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56,304	108
- 참 치	212,323	99
· 횡감용	25,094	93
· 통조림용	187,229	100
- 명 태	18,065	101
- 오징어	66,406	192
- 콩 치	2,818	189
- 기 타	56,692	92

회원지원부

- 2021년 제3차, 4차 선원복지 실무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3차) '21.10.13, 10:30 / 해운협회 (4차) '21.10.25, 14:00 / 해운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노조단체, 선주단체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관련 협의

○ 선원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TF 관련 업무 추진

가. 제2차 TF 회의 관련 업계 사전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6, 14:3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사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선원 수급문제 관련 사측 입장 의견 조율 등

나. 선원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TF 제2차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7, 14:00-15:40 / 서울역
- 참석자 : 해수부, 원양노조, 업계 등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원양어선 선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 케이프타운협정 관련 업무 추진

가. 케이프타운협정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10.15,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해수부, 한국선급, 해양교통안전공단, 원양 업계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협정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등

나. 케이프타운협정의 영향 및 전망 관련 공청회 참석

- 일시/장소 : '21.10.28, 14:00 / 세종시 컨벤션센터
- 참석자 : 해수부, 한국선급, 해양교통안전공단, 원양 업계 등 / 해외협력본부장, 회원지원부 과장, 사원
- 내용 : 케이프타운협정 비준의 영향과 전망 설명 등

○ FTA 수산분야 경제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6, 15:00 / 부산역
- 참석자 :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 부경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수입 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가능성 연구

○ 주부식비 효율적 관리를 위한 TF 사측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10.26,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사 TF 담당 위원 / 회원지원부 부장, 사원
- 내용 : 주부식비 운영관리 방안 논의

나. 제2차 TF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11.4,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노사위원사 TF 담당 위원 /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사원
- 내용 : 주부식비 운영관리 방안 논의

○ 해적피해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10.15,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목포해양대, 관련 업·단체 등 / 회원지원부 사원
- 내용 :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준비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0,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운협회, 해기사협회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세미나 준비경과 공유 및 행사관련 협조사항 논의 등

○ 조정관세 관련 업무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1, 10:00 / 세종시
- 참석자 : 해수부 / 해외협력2부장,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2022년도 조정관세 관련 업무 협의 등

○ 2021년 제2차 선내 인권침해 예방네트워크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2, 1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유관기관 및 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및 사원
- 내용 : 기관별 '21년 인권침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보고

○ WTO 수산보조금 관련 업무협의

- 일시/장소 : '21.10.29, 10:00 / 서울시청 인근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외,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 외, 농어업정책포럼 임정수 이사 / 해외협력본부장,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유류보조금 및 강제노동 어선에 보조금 지원 관련 협의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TF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4,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협 등 선주단체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개선 논의 등

○ 선상투표 관련 업무추진

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상투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0.22, 14: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 참석자 : 선관위, 해수부, 해상노련, 선주단체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관련 논의 등

나. 선상투표 준비에 따른 대상 선박 등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회원사/10.27)

-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상투표 대상선박 등 현황자료 요청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업무
- 가.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업무협의
 - 일시/장소 : '21.11.5, 14:00 / 협회
 - 참석자 : 부산 병무청 사회복무과장, 산업지원계장 / 회원지원부 부장, 과장
 - 내용 : 승선근무 예비역과 관련한 업무협의 등
- 나. 20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 인원 조정소요 제출(해수부/10.25)
 - '21년 배정인원 55명 → 3차 조정인원 51명
- 2021년 제3차 해양수산연수원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10.28, 11:00 /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 및 이사회 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연수원 중장기 경영목표 심의 등
- 제1차 해양수산연수원 임원추천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1.11.5, 14:00 /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 및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원장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구용역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회원사/11.1)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심의위원 변경 알림(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10.25)
 - 심의위원변경 알림(이성재 이사 → 소기동 부장)
- 2021년도 원양선원 해외묘지 관리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요청(해당 한인회/10.13)
 - 최종 사업내용 및 소요비용 등
- 선박 위생점검 관련 업무추진
- 가. 2021년도 EU 수출 위생점검 대상 선박의 국내입항 계획 제출(수품원/10.13)
 - 2021년도 미수검 선박의 국내입항 계획 제출
- 나. 21년도 EU 수출 등록선박 비대면 위생점검 계획 알림(해당선사/11.1)
 - 수품원, 국내입항이 불가능한 선박에 한하여 비대면(서류) 위생점검 실시
- 감천항 내 야간주차 제한 알림(회원사/11.1)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등 보안사고 예방차원 야간주차 제한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해선원지원사업 안내(회원사/10.14)
 - 직무상 장해를 입은 선원 대상 지원사업 안내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회원사/10.14)
 -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및 면책 조항 등
- 2021년 3분기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보고(해수부/10.18)
 - 37개사 188척 총 3,962명(인니 3,020명, 필리핀 582명, 베트남 299명 외)
- 20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현황 3차 조사(배정선사/10.18)
 - '21년 배정인원 55명 → 2차 조정인원 54명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검역소/10.18)
 - 4명(한국 1명, 인도네시아 3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해수부)
 - 1차(533명) / 2차(308명) (10.22 기준)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10.15)
 - 1개사 2척 9명(내국인 전원) PCR검사 확인
 - 방역강화 대상 국가 등 조정사항 안내(회원사/10.18)

- 외국인환자 편승입국(항) 허용 요청(해수부/10.20)
- 국적선 하선희망 환자(비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요청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마산, 통영검역소/10.29, 11.1, 11.3, 11.4)
- 34명(한국 12명, 인도네시아 12명, 베트남 5명, 필리핀 4명, 기타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해수부)
- 1차 접종(580명) / 2차 접종(358명) (11.5 기준)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해수부/10.29)
- 7개사 8척 45명(내국인 전원) PCR검사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11월) 안내(회원사/10.25)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격리기간 단축 알림(회원사/11.1)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회원사/11.2)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021년 11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회원사/10.1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0.18)
-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0.20)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의심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0.27)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1)
- 아메리카 해역 해적의심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1.3)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제28차 CCSBT 연례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021.10.11-15, 14: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CCSBT 회원국 / 협력1부 과장 외 1명
 - 내용 : 2022년 우리나라 쿼터 확정, TAG 부착 위치 권고 등
- 제10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021.10.13, 10: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해양포유류 부수어획 경감조치 해양수산물 제출(안) 확정, IATTC EM 시범 사업 참여 여부 재검토 등
- 제98차 IATTC 연례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021.10.19-23, 0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일본, 에콰도르 등 IATTC 회원국 / 협력1부 주임
 - 내용 : 동부태평양 열대다랑어 보존조치 논의, 항만국 검색 보존관리조치 채택, 연승 과학업서버 보존조치 부결 등
- WCPFC 열대성다랑어 보존조치 관련 대책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1.10.21,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자원과,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치어업출어사 / 협력1부 과장 외 2명
 - 내용 : 열대성다랑어 보존조치 개정 관련 업계의견 수렴

○ ICCAT 수역 바다거북 부수어획 관련 한미 양자협
의 참석

- 일시/방식 : 2021.11.5, 0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NOAA 담당자, 해양수산부 국제협
력총괄과, 원양산업과, 해외수산협력센
터 / 협력1부
- 결과 :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에 바다거북 부수어
획 저감조치 법제화, 원양어업 허가조건에
포함 요구. 추후 기술적 협의 예정

○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설명회 참석

- 일시/방식 : '21.10.26, 14:00 / 여의도 켄싱턴 호텔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한국항만기술단 등 / 협력1부 주임
- 내용 : PNG 마누스항 등 해외항만개발협력 기본
계획 설명

○ 제3차 BBNJ 포럼 참석

- 일시/방식 : 2021.11.1, 14:3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민환경연구소,
KMI, NGO 등 / 협력1부
- 내용 : 이원지역 구역기반 관리수단 설정에 있어
BBNJ 역할과 한계 논의

○ 제9차 IOTC TCAC(어획할당기준기술위원회) 참석

- 일시/방식 : 2021.11.2.-5,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일본, 몰디브 등 IOTC 회원국 / 협력
1부 과장
- 내용 : IOTC 어획할당기준 논의 등

○ 제11차 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021.11.5,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어업 출어사
/ 협력1부, 회원지원부장
- 결과 : 정부가 노력에 확인한 최종 요구사항을 재
협의하기로 함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WCPFC FAD mesh-net 사용 관련 검토 요청
(참치선망)
- 해양포유류 보존 필드가이드 포스터 추가 배부처
제출(과학원)
- 태평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소진실적 확인(참치
연승 출어사)
- 원양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공고 알림
(참치어업출어사)
- 2022년 전자조업감시(보고)시스템 기능 개선 수
요 조사(전 회원사)
- 지역수산물기구 어획할당량 소진 실적 및 전배 현황
보고(해수부)
- CCSBT 남방참다랑어 9월 어획실적 및 11월 양
륙계획 제출(해수부·수품원)

○ 참치어업 지원사항

- PNG 입어 선박 목록 작성요청(PNG 입어선사)
- 나우루 조업일수 전배 가능 마감일자 안내(참치
선망)
- 연안국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실적 확인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 PNG 수역 조업 당부(승선검색 및 코로나 확산
유의)
- '21/'22어기 키리바시 입어료 2차분/OPRT 선박
등록비 송금
- 2022어기 PNG 입어선박 목록 제출(선망산지원선)
- 연안국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실적 확인(참치선망)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가. 러수역 조업 보고 제출

(11.2 / 해수부, 주러한국대사관)

- 명태 22,580톤(80%소진), 대구 3,036톤(61%소진), 꽁치 0톤

나.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러수역 조업선 입어료 송금 알림

(10.14 / 해수부, 주러대사관)

- 한성기업 준성호 허가장 변경

(10.18 / 연해주수산청, 해수부)

- 환자 긴급하선에 따라 선원수 변경

- 대구저연승 조업선 조업 확인 내용 알림

(10.18 / 해수부)

- FMC측에서 러수역 영해 침범 통보내용에 따라 '청용83'조업선의 조업 위치는 러연방 영해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동북극국경수비대 확인 내용 제출

- 북양트롤선 허가장 변경신청(11.5 / 연해주수산청)

다. 꽁치붕수망 업무추진

- '21년도 미입어 결의 내용 알림

(10.15 / 국경수비대, CFMC)

- 북태평양 공해에서 조업량을 참고하여, 러수역에서도 어획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입어 결정 및 '19년 및 '20년간 어획량 전무를 감안하여 갑작스런 변경에 대한 이해 협조 내용 알림

- '21년도 지급된 이용료 차년도 활용 요청

(10.15 / CFMC)

- 이용료 차년도 활용 요청 업계 서한 제출

(10.19 / CFMC)

- '21년도 등록된 통신장비 등록정보(DNID) 제거 처리(10.19 / CFMC)

- 러수역 피항시 보고 내용 알림

(10.26, 11.2 / 꽁치출어사)

- 러수역 입어료 송금

(10.28 / 해수부, 주러대한민국대사관)

- 러수역 모니터링 이용료 이월 사용 계약서 서명본 제출(10.26 / CFMC)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 가. 컨설턴트 한국방문시 KR, KOMSA 방문내용, 선주와의 회의시 주요전달사항 안내(10.15 / 오징어위원회)

- 나. 포클랜드 대방사 오징어 대방사 입어료 정산금 납부 알림(10.15, 10.18 / 드래곤·시피쉬社)

- 송금 케이블 대방사 송부(10.16, 10.19)

- 다. 2022어기 입어신청서 대방사 제출

(10.15 / 포클랜드대방사)

- 입어신청시 드래곤社와의 MOU 등 각종구비서류

- 라. 페루항만 입항 예정 어선 명단 제출(10.15 / 해수부)

- 8개사 14척

- 마. 대방사 컨설턴트 몬테비데오 방문 관련 입항예정일 및 현지 공무감독 명단 제출(10.20 / 몬테체항선사)

- 11.16~24(나이젤, 리암) 방문점검예정, 정일산

- 업 현지 대리점 지원 예정

- 바. 대방사 요청자료 송부(11.4 / 드래곤社)

- JV설립시 문제점, 어획권한약정요율 인상불가사유, '21어기 총재고량 등

- 사. 제6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11.5,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출어사/ 해외협력2부장 외 1명

- 내용 : '22어기 훈련교육/수검 등 수검입항기간 협의, 주재원 추가 파견 협의

- 원양어선 항해시 연안국 등 입·퇴역 보고 관리 철저 및 모니터링 강화 요청(9.24 / 북양·대구·꽁치·오징어·남빙양위원회)

- 러시아, 포클랜드, RFMO 입퇴역 규정 알림

- 국제수산기구(RFMO)별 보존조치 준수 대응
- 가. NPFC 협약수역 승선검색 실시내용 입수 (10.12 / NPFC)
 - '517성경', '302창진', 승선검색 실시하였으나 특이점 없음 확인
- 나.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행위원회 참석
 - 기간/장소 : '21.10.18~22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FMC, 외교부, 협력센터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VMS 데이터 자동 전송 시범 자발적 수행(안) 채택
 - SISO 읍서버 승선 구체화 및 폐기물 방류금지 기준 대립 상태 지속
 - 이행위 한국 지적사항 논의(1건 미합의, 1건 이행, 2건 level 1 불이행, 1건 미논의)
 - IUU 선박목록 우선 준치기로 합의
- 다. SPRFMO 오징어채낚기선 노력량 제한 관련 선박 등록사항 확인요청(10.22 / 오징어출어사)
- 라.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참석
 - 기간/장소 : '21.10.25~29, 07: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외교부, 수과원, 수품원, FMC, 협력센터 / 해외협력2부
 - 내용 : 88.1, 88.2해구 시험조업 해구당 6척, 88.3 해구 과학조사 1척 통과, 58.4.1해구 과학조사 및 MPA 설정(웨델해, 동남극해, 남극반도) 만장일치 부재로 무산
- 마. SPRFMO 오징어채낚기선 노력량 제한 관련 ('21.12.30기준) 선박 등록 사항 확인 제출 (11.3 / 해수부)
- 미 MMPA(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관련 업무추진

- 공해 저충어업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 장착 계획 확인(10.13)
 - (홍진실업) 동종업계 정일산업에서 제작한 혼획 저감장치를 동일하게 제작하여 탁송할 예정임
- 혼획저감조치 전문가 의견수렴 알림 (10.20, 10.22 / 저연승·트롤출어사)
 - 해수부로부터 MMPA 동등성 평가 관련 정리 내용 및 의견 수렴 알림
- 혼획저감계획 재검토 의견 제출(10.22 / 해수부)
 - (트롤) 해수부는 2마리 이상으로 변경요청 하였으나, 최종 기준으로 월간 4마리 이상 해양포유류 포획시 이원 조업
 - (저연승) 어구전달 투승사→양승시 변경, 이원조업 10마일→5마일 축소
- 혼획저감계획 영문본 작성 제출(10.27 / 해수부)
- 원양어업 해양포유류 혼획저감계획 수립 및 혼획 저감 전문가위원회 구성 알림(10.27 / 남빙양저연승, 오징어트롤, 참치연승 출어사)
- 트롤업종 비폭발성음향장치 세부 정보 제출 불가로 동등성 평가시 미포함 제출 요청(10.29, 11.1 / 오징어트롤출어사, 해수부)
- 20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추진
 - '21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별 지원금액 배정 결과 정정 알림(11.1 / 원양물산, 정일산업)
-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추진
 - '21년(3척) 및 '22년(3척) 사업자 및 예비사업자 모집공고 안내(11.4 / 오징어채낚기, 콩치붕수망 출어사)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112개사 735건(10.1~10.31) 계량

- 순직선원 합동위령제 관련 업무추진
 - 가. 제43회 순직선원 합동위령제 참석
 - 일시/장소 : '21.10.14, 11:00/ 순직선원위령탑
 - 참석자 : 선원노련,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주단체 등 / 협회장, 부산지부장
 - 내용 :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 나. 제3차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결산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1.2, 11:00 / 마린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 선원노련,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주단체 등 / 부산지부장
 - 내용 :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결산 및 논의 등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 일시/장소 : '21.10.12, 11:00/ 원양프라자 3·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9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9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22년도 제1차 부산권 냉동창고 항운노조 임금인상 부대근로조건 개선협의회
 - 일시/장소 : '21.10.12, 11:30/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노측) 항운노조 7명 (사측) 원양협회 부산지부장 등 3명
 - 내용 : 항운노조와의 노·사 상견례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 임시총회
 - 일시/장소 : '21.10.21, 11:00/원양프라자 3·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정관 개정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4개사 4척(참치연승4)
 - 출항 : 9개사 12척(참치연승7척, 오징어채낚기 5척)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가. 제17차 WCPFC 북방위원회(NC17)
 - 일시/장소 : '21.10.5~7.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수과 원 이미경 연구사,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태평양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WCPFC 북방자원 관리 논의
 - 나.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 일시/장소 : '21.10.18~29.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국총과 유은원 과장, 김정례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논의, 해구 별 어획 한도 등 설정 논의 등
 - * 이행위, 재정위, 연례회의 동시개회
 - 마.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CCSBT) 제16차 이행위원회
 - 일시/장소 : 10.5~7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김선경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회원국 이행평가, 총회에 대한 권고 작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대안 논의, QAR 방향성, EM 실시 경험 공유, eCDS 등

바.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제28차 연례 회의

- 일시/장소 : 10.11~13 /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김선경 전문관
- 내용 : 남방참다랑어 TAC 결정 및 할당, ESC, CC 권고사항 검토, 과학연구조사/시장조사 포함 '22년, '23-24년 예산 승인 등

차. IOTC 제5차 어획증명제도(CDS) 작업반 회의

- 일시/장소 : '21.10.20~21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나일강 전문관, 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타 기구와의 CDS 개발 협업 옵션, 대상 어종, 어업, 운영 및 행정사항 등

○ OFIS 업데이트

- 국제수산 월간동향 10월호 업데이트
- 월간 일본 동향 10월호 업데이트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국제회의의 참석일정 게시판 개설(10.4)
- OFIS 현황 및 클라우드 이전 비용 자료 작성 및 보고(10.6, 국총과)
- 3분기 전문가 특별기고 업로드(10.8)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 3/4분기 활동실적보고 제출(10.6, 국제협력총괄과)
- 명예해양수산관 위촉장 발송(인도네시아(대사관), 사모아)

○ 해양수산부 ODA사업 추진기관 간 협력방안 협의 회의

- 일시/장소 : '21.10.28, 10:30/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김태훈 연구원,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해양수산 ODA 사업 추진기관 간 협력방안 모색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원양어업 통계조사 선원통계 개선회의 참석

- 일시/장소 : 10.27. / 센터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서민혜 사무관, 조현주 주무관, 선원정책과 김환 사무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권경근 부장, 김열임 차장, 협력센터 윤유정 행정관
- 내용 : 원양어업 통계조사와 한국선원통계의 선원 통계 불일치 사유 파악, 일치화 방안 논의

나. 원양어업 생산동향('21.8.) 작성 및 OFIS 게재

○ 센터운영관련

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사업 실적보고 작성제출(10.8, 국제협력총괄과)

나. '21년도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2차 교부금 교부 신청(10.19, 국제협력총괄과)

다. 협력센터 기획운영팀 행정관 채용

- 서류접수 마감(10.5, 12:00/접수인원 11명) 및 채용 서류심사
- 행정관 채용 서류합격자 발표(10.12)
- 채용 필기, 면접(10.15)
- 행정관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10.18, OFIS, 원양산업협회 홈페이지)



동태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동태 1마리, 알 1컵, 곤이 1컵, 두부 1/3모, 대파 1대, 애호박 1/4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무 1/3개, 쭈갓 1개, 멸치육수 500ml

<양념장>

다진마늘 2T, 간생강 1/3T, 새우젓 1.5T, 국간장 5T, 고춧가루 3T, 고추장 2T, 된장1T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무는 나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두부는 편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동태를 넣은 후 멸치육수를 넣어 끓인다.
- ④ 육수가 끓으면 양념장을 넣고 알과 고니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 ⑤ 썰어놓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후 쭈갓을 올려 완성한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0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양식업 개발 전략계획 관련 워크숍 개최(10.21)

- Alioune Ndoeye 수산경제부 장관 주재 양식업 개발 전략계획 검증 워크숍이 개최되어, 세네갈 양식업의 생산성 강화와 교역국 협조를 도모.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207
	1.8kg	1,164
	1.5kg	1,035
황다랑어	10kg	2,178
	3.4kg	1,251
	1.8kg	1,164
눈다랑어	10kg	1,207
	3.4kg	1,207
	1.8kg	1,164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89 유로/MT	경유	'21.10.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성인 2차 접종 완료인원이 80프로를 넘어가는 상황으로 현재는 청소년(15-17세)들을 상대로 모더나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 통행금지 시작 시간이 기존의 오후 10시에서 새벽 4시로 늦춰졌으며, 피지정부는 곧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모든 가게 및 사회시설의 오픈 및 각종 모임개최를 허용했다.
- 단, 이 허용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만 해당되며 가게 이용객 및 시설이용자는 백신접종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 모든 장소의 수용인원은 정원의 70퍼센트 내에서만 가능하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2,9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11달러/MT	M.G.O	'21.10.8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5~0.8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5톤 정도이다.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2022년 하와이언 항공 운항 일정은 1월 6, 27일, 2월 17일, 3월 10, 31일로, 입국 시 14일간 격리 기간에 사용될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1개월에 2편의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 Lemanu Mauga 사모아 총독은 12월 15일까지 정부 관련 모든 공무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이를 의무화했다.
- 사모아 보건청에서는 백신접종을 목표치를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59(gallon)	'21.11.9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WAREH OU	3L	2,850	Sea Jho Co.Ltd
	2L	2,750	
	L	-	
	M	-	
	S	-	
BARRA COUTA	2L	1,600	
	L	1,500	
	M	1,400	
	S	1,3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845/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11.2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Foodstuffs사, Sealord사 수산물 취급 중단 결정

-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의 약 53%를 차지하는 Foodstuffs사가 뉴질랜드 수산 가공기업 Sealord사 제품의 상당수를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이로 인해 현재 80%를 차지하는 Sealord사의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급감하고, 수입품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된다.
- 뉴질랜드 내에서는 Foodstuffs사의 독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해당 기업은 뉴질랜드 상업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Tema항 어선 선원 대상 COVID-19 예방접종 실시

- 가나트롤협회(GITA)는 Tema 어항의 어선 선원과 상인을 대상으로 COVID-19 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 GITA는 Tema 어항 내에서 활동하는 약 2,000명의 선원 및 어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해상 단속반, 불법 어업 적발

- 가나 수산위원회 수산단속반, 해군, 해양경찰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불법 어업자의 카누, 어로 장비, 발전기 30대 등을 압수했다.



- 단속반은 7월 1~31일간의 금어기를 위반한 어업자 5인을 체포해 기소하기도 했다.
- 가나는 최근 EU로부터 옐로카드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가나 정부는 불법 어업에 대해 기존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700	
	10kg 하	1,360	
가다랑어	3.4kg 상	1,200	
	1.8kg 상	1,150	
	1.5kg 상	1,000	
	1.5kg 하	95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680달러/kl	M.G.O	'21.10.31	
항만급유	750달러/kl	M.G.O	'21.10.31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입국 외국인 격리기간 추가 단축

- 기존 5일에서 1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5일, 2차 접종자의 경우 3일로 변경
- 11월 2일(화)부터 시행
- 1차 접종 완료자는 5일(5*24시간) 동안 격리시설(호텔 등)에 의무 격리하고, 입국일 및 격리 4일차에 PCR 검사 실시.
- 2차 접종 완료자는 3일(3*24시간) 동안 격리시설(호텔 등)에 의무 격리하고, 입국일 및 격리 3일차에 PCR 검사 실시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페루, 외국적 대왕오징어 선단 감시

- 9월 4일, 페루 항만국-해안 경비대는 해상 비행을 통해 외국적 대왕 오징어 선단에 대해 감시한 결과, 페루 해안에서 약 260海里 외곽에 선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나. AP통신, UNIVISION, 환경단체 SEA SHEPHERD와 중국 어선 활동 관찰

- AP통신과 스페인 TV 네트워크 UNIVISION은 환경단체 SEA SHEPHERD와 공동으로 남미 연안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활동을 처음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AP가 세밀히 관찰한 40척 중 24척은 선원들의 노동 착취 혐의를 받았거나 해양법 위반 징후를 보였다. 16척은 위치발신 장치를 OFF하고 선명/위치가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AP는 이들이 불법 조업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4년간 공해 조업선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에 따르면, CHANG TAI 802를 포함한 강제노동 혐의로 기소된 회사소속 선박도 6척이나 있었다.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 종	조 사 일
PETRO PERU	2.57 달러/갤론	MARINE DIESEL ULS	'21.9.28

<게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라니냐 발생 확률 70~80%

에콰도르 전국수산업협회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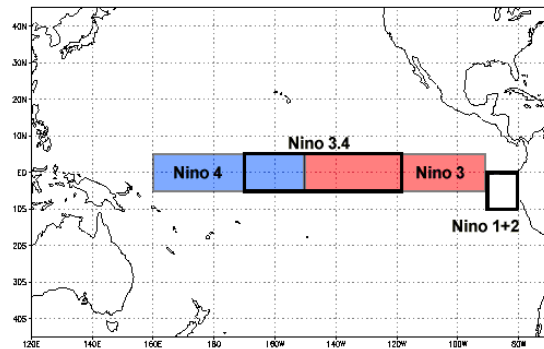
에콰도르 전국수산업협회(CN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8월과 9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았다. 2000~2015년 평균 온도보다 높은 지역은 에콰도르 해안선을 따라 일부 EEZ를 포함하는 1+2 지역(지도 참조) 단 한 곳뿐이었다.

CNP의 Franklin Ormaza 과학 고문에 따르면 참치가 풍부한 지역 3.4(지도 참조)에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전개되고 있다. 라니냐 발생이 어획량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동태평양에서의 참치 어획량이 증가했다.

예측 모델에 따르면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70~80%이다.

라니냐 기간 동안 태평양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수

역에서는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지만 더 많은 영양분을 포함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0일자

아직 방콕 병목현상 징후 없음

가다랑어 1,325 달러

수요 부진과 공급 위축으로 방콕 냉동 가다랑어 가격이 1,300원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톤당 1,325 달러로 1,325~1,350 달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주전 가격은 1,300 달러였다.

과거 FAD 금지가 종료되면 방콕에 도달하는 물량 과다로 병목 현상이 발생했지만 현재 중서부태평양 어업 부진으로 인해 병목 현상 발생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태국 캔 가공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단일 관세 할당을 이용하기 위해 참치캔을 운송하고 있거나 이미 운송 완료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소식통에 따르면 캔 가공업자들은 단일 관세 할당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컨테이너 부족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9일자



태국 3분기 참치캔 수출량 급감 미국 수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올해 3분기 태국의 참치캔 수출량은 32만 2,947톤으로 지난해 대비 26% 감소했다. 언뜻 보기에는 코로나19로 급증했던 수요가 안정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20% 감소했다.

CFR 기준 톤당 평균 수출 가격은 70 달러 정도 하락해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올해 수출액은 12억 3,000 달러로 지난해 17억 달러 대비 감소했다.

태국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높은 수준의 해상 화물 운송료이다. 많은 구매자들이 운송료가 하락할 때까지 구매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수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 수출 감소량은 20피트 컨테이너 2,518대분이다. 감소분만 합쳐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이집트에 수출하는 물량과 거의 동일하다. 미국 수출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1분기 26%, 2분기 36%, 3분기 41%.

수출 비중 3~7위를 차지하는 호주, 일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로의 수출량은 각각 18%, 17%, 65%, 38%, 20%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9일자

선망선 연료비, 1년만에 최고치 기록 세계 평균 MGO 가격, 770 달러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선주들은 2020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의 연료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 유가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브렌트유(Brent crude) 가격은 현재 배럴당 83.66 달러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 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는 12월에도 1일당 40만 배럴의 원유 증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연료비 상승은 그 여파로 선박용 경유(MGO)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병커항 MGO 가격은 현재 톤당 712

달러로 올해 최고 수준이며 1개월 전보다 10%나 상승했다. 세계 평균 가격 또한 톤당 770 달러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현재 냉동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톤당 1,325 달러이다. 일반적으로 참치 1톤 어획에 약 0.65톤의 연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선주들은 참치 1톤당 약 462.8 달러의 연료비를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선망선 선주들은 어획물을 운송선에 전재해 방콕까지 운송하는 데 평균 3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로 인해 선주들은 남은 562.2달러로 계류비, 라이선스비, 인건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9일자



PNA FAD 어업, MSC 인증에 가까워져 인증평가기관, 인증 조건 충족 결정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평가기관 Lloyd's Register는 10월 28일 PNA 수역 선망선의 FAD 어업과 눈다랑어 어업이 MSC 인증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했다.

인증 평가단위는 3개로 각각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선망 FAD 및 스쿨 어업이다.

PNA 참치 어업은 모든 MSC 원칙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했다. 개별성과지표(PIs)로 보면 어획통제규칙(HCR) 및 도구와 어획 전략은 각각 60점과 70점을 받았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아직 명확한 어획통제규칙이 수립되지 않은 영향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Lloyd's Register의 최종보고서에는 이전에 이해관계자가 언급했던 내용과 그에 대한 Lloyd's Register의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한 참치어업을 위한 연합(CTTF)은 상어 지느

러미를 포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CTTF는 참치 선망선이 옴서버 커버리지 100%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어 지느러미 채취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C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Lloyd's Register는 『지느러미 채취를 최소화하고 근절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올해 11월 18일까지 제기해야 한다.

Principle	UoA 1 Skipjack	UoA 2 Yellowfin	UoA 3 Bigeye
Principle 1 – Target species	85.8 ¹	84.2 ²	81.7
Principle 2 – Ecosystem impacts	87.0		
Principle 3 – Management system	91.0		

¹ – as per PNAFTF 2018 PCR; ² – as per PNAFTF 2nd audit following February 2021 harmonisation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9일자

PNG-FIA 어업 MSC 인증, 눈다랑어 포함 가다랑어, 황다랑어에 이어 3종으로 확대

MSC 인증 적합성평가기관(CAB)인 SCS 글로벌 서비스는 MSC에 PNG-FIA 눈다랑어 어업 승인을 권고했다. FIA는 2020년 5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MSC 인증을 승인받았다.

PNG-FIA 어업은 파푸아뉴기니 북부 연안 EEZ와 군도 수역 참치를 대상으로 스쿨 조업을 한다.

이들은 고정형·부유형 FAD도 모두 사용한다. MSC 인증이 적용되는 선박 수는 84척이며, PNG, 필리핀,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대만 등의 국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1일자



日 재무성, 1~9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냉동 수입량 14% 증가, 수입 금액 48% 증가

2021년 1~9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37	-	53	35	113	27	45	49	9	368
	대만	355	-	130	688	-	64	335	1307	1185	4,065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	2	1	2,056
	기타	81	6	21	52	9	36	290	938	402	1,835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670	2,295	1,597	8,323
황다 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410	455	267	3,275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451	770	186	3,421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1535	1143	1253	11,625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114	22	18	897
	인도네시아	-	21	33	7	15	-	-	-	-	77
	미국	-	17	-	12	-	31	3	-	-	62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283	178	133	1,406
	피지	11	27	17	112	31	48	27	13	65	350
	키리바시	43	33	32	31	202	291	248	58	124	1,061
	마셜제도	104	-	54	-	25	-	257	189	830	1,459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969	529	701	8,357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4,296	3,357	3,577	31,991	
눈다 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352	110	73	1583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918	1,216	632	6,198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2,606	1,903	1,509	18,637
	세이셸	469	1123	826	376	460	292	460	150	297	4,452
	바누아투	156	319	510	576	328	55	48	117	149	2,257
	기타	145	63	59	99	22	95	113	63	114	773
	소계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4,496	3,560	2,773	33,900
남방 참다 랑어	한국	354	-	-	-	-	40	-	-	-	394
	대만	56	32	50	23	2	5	1	24	51	243
	호주	-	-	-	-	-	-	715	1,900	2,863	5,478
	기타	-	-	-	-	-	-	-	-	-	-
	소계	410	32	50	23	2	45	716	1,924	2,914	6,115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1월 5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900 엔 돌파 9월 대만산 단가 903 엔 기록

일본 냉동 눈다랑어 GG 수입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 9월 수입실적 발표에 따르면, 9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은 지난달 대비 787톤 감소한 2,773톤(지난해 대비 41% 감소)으로, 주력인 대만산은 1,509톤(29% 감소)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냉동 눈다랑어 CIF(수출업자 운임·보험료 부담 가격) kg당 단가는 8월 대비 57엔 높은 903엔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아카미(赤身, 붉은살) 시장 가격의 지표가 되는 대만산 인도양 냉동 눈다랑어의 일선매매(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거래가격은 대형(40kg 이상) 기준 kg당 1,000 엔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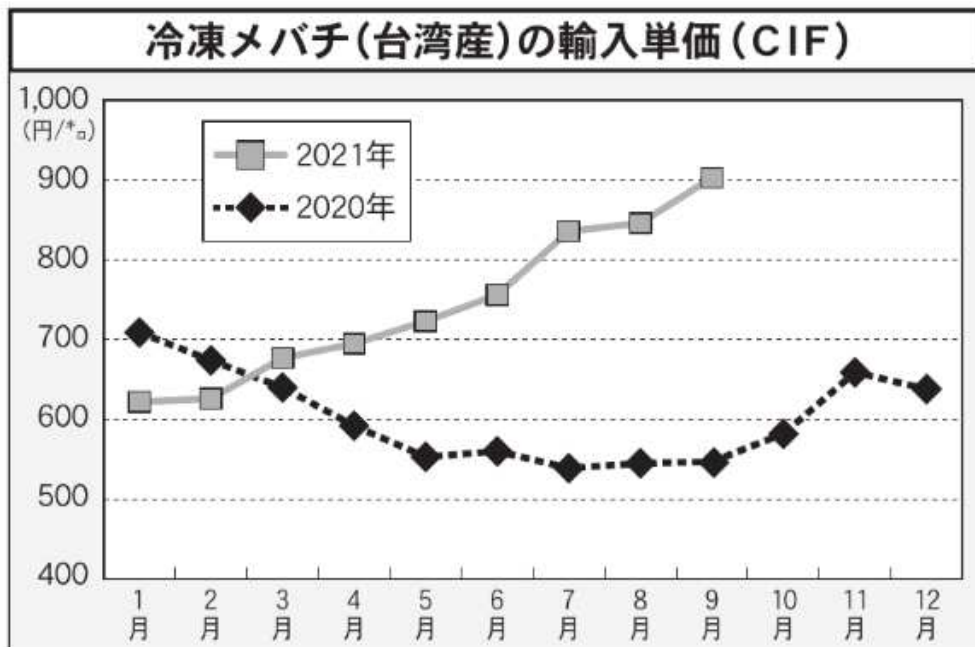
냉동 황다랑어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쿄 도요스시장 현지 도매 소식통에 따르면, 같은 크기

의 눈다랑어와 황다랑어가 동일한 가격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도요스시장 소식통에 따르면, 가격 상승과 재고 부족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의 양판점 아카미(赤身, 붉은살) 판매 수요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 9월 말 일본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 호텔, 외식 등의 수요는 점점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중간 및 저가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소식통은 향후 반입에 대해『조업에 나선 일본 선단과 해외 선단은 적어도 내년 봄이 되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는다. 재고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20일자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톤당 1,219 달러

거래 부족으로 하락 압박

세이셸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의 현물 가격은 약 1,219 달러로, 지난 9월 말 가격보다 약 3%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어획량이 양호한 편이었다.

현재 황다랑어 쿼터가 대부분 소진되어 FAD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이셸과 모리셔스의 가공 공장들이 충분한 원료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콕과 만타의 경우,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들 주요

생산지에서 매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압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 압박은 다른 부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운임, 철강, 포장비용 등의 상승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다랑어 가격은 2,321 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연말까지 황다랑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8일자

2020년 인도양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

선망선 어획량 감소, 손낙시 증가

IOT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양 열대 참치 어획량은 107만 1,333톤이었다. 이는 2019, 2018년에 비해 각각 4%, 7% 감소한 수치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이 전체 참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상 4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에 비해서는 3만 5,000톤 감소했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9년 대비 4% 감소했다. 2017년 자원 재건 계획 시작 이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에 감소로 돌아섰다.

선망어업은 전체 참치 어획량의 40%를 차지했다. 어획량은 2019년 대비 4만톤 감소했지만 지난 10년으로 볼 때 최고 수준에 가깝다.

인도양에서 선망선은 대부분 FAD 조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어획으로 잡히는 황다랑어, 특히 어린 개체에 자원 압력이 가해진다. 2020년 선망선 황다랑어 어획량은 2011년 이후 최저치인 13만 243톤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황다랑어 어획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손낙시(handliner) 부문의 황다랑어 어획량은 10만 6,263톤(전체의 약 25%)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19년에 비해서는 2만 5,000톤 증가했다. 황다랑어 어획량의 나머지는 자망, 연승, 채낚기 등에서 어획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6일



인도양 황다랑어 크기, 지난 70년 중 가장 작아 평균 6.86kg

지난 10월 25일까지 진행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열대참치 작업반(WPTT) 회의의 자원 평가에 따르면, 2020년 인도양에서 어획된 황다랑어의 평균 사이즈는 6.86kg으로 지난 7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1951년이다.

급랭시설 보유 연승선의 경우, 평균 어획물 사이즈가 52kg으로 조업 방식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선어 상태로 보관하는 연승선의 경우는 20kg이었다. 최근 5년간 선어 연승 어업은 지금보다 훨씬 덜 발달된 방식으로 어업을 한 1955년과 평균 어획물 크기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채낚기 어업의 평균 어획물 사이즈는 모든 어업 방식을 통틀어 최저치인 2.28kg을 기록했다. 트롤 어업의 평균 어획물 사이즈가 3.72kg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망 FAD 어업의 경우 평균 어획물 사이즈가 4.03kg으로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고, 프리스쿨

의 경우는 평년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2020년 황다랑어 어획 마릿수가 최다 수준인 6,300만 마리를 기록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2019년 어획 마릿수는 6,200만 마리로 2018년 4,620만 마리 대비 급증했다. 이에 비해 2017년 인도양 황다랑어 재건 계획이 수립되었을 시기의 어획 마릿수는 총 5,300만 마리였다.

선망 FAD 어업으로 어획된 황다랑어는 톤당 248마리, 총 2,150만톤으로, 황다랑어 자원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손낚시(handliner)가 톤당 어획 마릿수에서 그 다음을 기록했으나, 선망 FAD 어업의 절반 미만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쿨조업 선망선은 톤당 35마리만을 기록했다. 급랭시설 보유 연승 어업은 톤당 20마리만을 기록해, 톤당 평균 크기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8일자

인도양 연안국, IOTC에 dFAD 감축 논의 특별회의 요구 EU·일본 등 원양 선망어업 국가 반대

10월 중순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이란 등은 케냐가 6월의 IOTC 정기총회에서 제시한 dFAD 감축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임시 총회 소집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소말리아, 케냐도 10월 초 같은 요청을 했다.

몰디브,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등 8개국이 공동 발의한 케냐의 dFAD 대폭 감축안은 EU, 일본 등 원양 선망선단 보유국이 반대했다.

이달 초 IOTC 위원장은 투표 과정 논의 및 해당

안전 채택 여부 확인을 위해 내년 1월 5일간의 임시 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EU와 일본은 당사국들이 dFAD 권고안에 대해 합의된 접근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반면 인도양 연안국들은 회원국이 해당 제안에 투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월보다 더 이른 시점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5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1,600 달러로 상승 동부태평양 어획 부진 원인

에콰도르 만타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의 현재 가격은 9월 가격인 1,550 달러에서 소폭 상승한 1,600 달러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선단 어획량이 좋지 않아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가다랑어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금어기가 지난 10월 8일자로 종료되었지만 양륙량은 현재까지 정상화 되지 않았다. IATTC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 말까지 동부태평양 선단 어획량은 23만 3,637톤으로 지난해 동기 어획량인 24만 5,044톤보다 낮았다. 만타 현지 의견을 감안하면, 이러한 격차는 9~10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동부태평양 어획량이 너무 적어 만타에 참치를 하역하는 운반선 중 상당수가 중서부태평양에서 왔다.

만타에 가다랑어를 공급하는 중서부태평양 중계업자들은 더 큰 고객 기반이 있는 태국 대신 만타로 운반선을 보내는 대가로 방콕 시장 가격보다 약 150 달러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동부태평양에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어획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11월 9일 2차 IATTC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서부태평양 공급 의존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1일자

중서부태평양, 동부와 동일한 규칙 따라야 에콰도르 선주협회 주장

과야킬과 만타의 선망선 선주들로 구성된 협회 Protuna는 트위터를 통해 태평양의 동쪽과 서쪽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Protuna는 중서부태평양에서 남획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동부태평양과 중서부태평양의 주요 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서부태평양에서는 모

든 참치 어업에 대한 전면적인 금어기가 없고 해상에서 어획물 및 연료 환적도 허용되며 늘릴 수 있는 어선 척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Protuna는 『우리는 NGO와 FAO가 전체 태평양에 대한 국제 어업 표준의 조화를 요구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11월 3일자



IATTC, FAD 감축 합의 눈다랑어 어획량 제한 조치도

10월 18일에 시작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가 5일간의 회의 끝에 지난 22일 종료되었다. 회원국들은 열대 참치 보존조치에 합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고,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마침내 2024년까지 동부태평양 내 FAD, 눈다랑어, 상어 등의 관리를 보장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3년 내로 어선 1척당 운용 가능한 FAD 제한은 미국과 에콰도르가 초기에 제시한 수준보다도 엘살바도르가 원했던 수준에 더 가깝게 점진적 감축될 예정이다. 1,200m³ 이상의 '6급(class 6, 363톤 초과 어선을 의미)' 선망선은 2022년 400개의 FAD를 운용할 수 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340개를 운용할 수 있다.

6급 미만 선망선은 2022년 270대, 2023년 255대,

2024년 210대를 운용할 수 있다. 5급 이하 모든 선망선이 운용 가능한 FAD 수도 매년 감축될 예정이다.

또 다른 주요 합의 내용은 눈다랑어 어획량 제한 및 쿼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였다. 연간 눈다랑어 어획 쿼터가 1,200톤 이상인 선망선은 더 긴 금어기 조치를 받게 된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초과량에 따라 최대 22일간 어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선망선은 최대 94일까지 정박해야 할 수도 있다.

소식통들은 일련의 프로토콜들이 동부태평양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 나온 종합 대책은 환영할 만한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5일자

IATTC, 동부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증가 합의 WCPFC에서도 증가 합의 가능성 높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제98차 연례회의에서, 동부태평양 2022~2024년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15% 증가가 정식 합의되었다.

2021~2022년 쿼터는 멕시코 6,556톤, 미국 739톤이며 2023~2024년 쿼터는 멕시코 6,973톤, 미국 1,017톤으로 설정되었다.

올해 쿼터는 멕시코 3,000톤, 미국 300톤이며 내년 쿼터는 8월 회의에서 3,795톤(멕시코 3,450톤, 미국 345톤, 각각 15% 증가)로 결정되었고, 추가로 200톤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200톤

배분은 계산상 내년에 멕시코 106톤, 미국 94톤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11월 29일~12월 7일 동안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8차 정기총회에서도 참다랑어 쿼터 증가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WCPFC 북부위원회(NC)의 미국 대표는 해당 조치가 IATTC에서 통과될 경우에만 미국이 WCPFC 총회에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27일자, SeafoodSource, 10월 21일자



참치 먹으면 조울증 완화?

미국 연구결과 개선

양극성장애(조울증) 환자가 식단 조절을 잘하면 증세가 누그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 돼지고기 등 육류를 줄이고 아마씨와 참치, 콩치 등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먹으면 기분 변동이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의대와 밀턴S 허시 병원 정신의학과 행동건강과 연구진은 조울증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시험한 결과를 학술지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s)》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임상시험 대상자의 절반인 41명에게 식단 상담을 하고 12주 동안 육류, 계란, 특정 기름 등을 덜 먹게 해서 오메가6의 섭취를 줄이는 대신 아마씨와 참치 등의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섭취를 늘도록 했다. 대조군인 41명에게도 특정한 음식을 먹게 했지만 참가자들에게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도록 했다.

연구진은 82명에게 매일 두 번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분, 통증과 기타 조울증 증세에 대해 응답토록 조사

했다. 그 결과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오메가6 섭취를 줄이면 기분 변동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해산물을 충분히 먹는 사람에게서 양극성장애가 적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환자에게서 생선기름 보충제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는 없었다.

연구를 주관한 에리카 산더스 교수는 『특정한 오메가 지방산이 인체대사를 변화시켜 염증이나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특정 지방산이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의 약리작용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했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는 참여도가 높은 여성과 백인을 주대상자로 삼았지만, 인종과 성 등에서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코메디닷컴, 2021년 10월 10일자

CCSBT 남방참다랑어 쿼터 결정

日 6,245톤, 인도네시아 1,095톤 등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제28차 연례 회의가 지난 10월 11~15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022년 전체 TAC는 1만 7,647톤으로, 이 중 인도네시아 1,095톤, 일본 6,245톤이 배분된다. 그

외 한국과 대만에 각각 1,257톤, 뉴질랜드 1,102톤 등이 배분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19일자



지속가능 FAD ‘젤리 FAD’ 개발 연구진 ‘기존 바이오 FAD보다 수명 길어’

세계의 과학자들이 참치 선망어업에 사용되는 FAD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구하는 가운데, 최근 한 연구진이 기존의 ‘바이오 FAD’에서 한층 더 나아간 ‘젤리 FAD(Jelly-FAD)’를 개발했다.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 스페인 연구기관 AZTI, 해양과학연구소(ICM) 소속 과학자들은 최근 ‘젤리 FAD: 바이오 FAD 디자인의 패러다임 전환(The Jelly-FAD: A Paradigm Shift In Bio-FAD Desig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FAD 작업반에 제출했다.

기존의 부유형 FAD(dFAD)는 팻목과 플라스틱 재질 부속 장치(나일론 그물, 부표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시 환경오염 위험이 컸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분해 가능한 유기 재료로 구성된 바이오 FAD를 개발해왔다.

ISSF는 역학·부유력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스페인 연구기관 CISC의 해양학자들과 협력해 젤리 FAD

라는 혁신적 디자인을 고안했다.

젤리 FAD는 최소한의 구조적 저항력만으로 표류하며, FAD에 사용되는 유기물질은 해파리처럼 준중성 부력을 제공한다. 과학자들은 FAD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밀도가 해수와 비슷하고 최소한의 장력과 전단력(shear force)만을 허용하는 dFAD를 설계하길 원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ICM 시설 해수조에서 구성요소(대나무, 로프, 면직물)의 밀도를 확인한 후, 바람과 파도에 의해 생성된 표면 저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장치의 무게와 부유력을 평가했다. 또한 과학자들은 앵커 역할을 하는 장치인 ‘드로그’에 1m³ 크기의 대칭 구조를 활용해 부피를 줄였다.

현재 젤리 FAD 프로토타입은 지중해 10대, 중서부 태평양 50대, 대서양 35대, 동부태평양 50대 등 다양한 수역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며, 2021년 말과 2022년 초 더 많은 실험이 예정되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1일자

오만, 참치 어획량 증가 지난해 6만 8,578톤

지난해 오만 어류 어획량은 44.8% 증가한 84만 378톤으로 집계되었다.

영세어업으로 어획된 물량이 79만 3,419톤이며 이 중 참치 어획량은 6만 8,578톤이다. 참치는 전체 어획량에서 8.6%를 차지하며 정어리(54.2%) 다음으로 많이 잡혔다.

2018년 오만 정부는 어선에 투자해 2023년까지

어획량을 130만톤으로 늘리고 참치 어획도 증가시키겠다고 목표를 세운바 있다.

지난해 총 어류 수출량은 30만 977톤이다. 22.2%가 인근 아랍국가로, 10.2%가 미국으로, 0.5%가 EU로 수출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15일자



식물성 식용유 가격 급등, 참치캔 가공업에 타격

FAO 가격지수 184.8포인트...9월 대비 9.6% 상승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 가격은 지난해 30% 이상 급등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FAO 식품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 101.4 포인트였으나 올해 10월 133.2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이 중 10월 식물성 식용유 가격은 9월 대비 9.6% 상승한 184.8포인트를 기록했다.

FAO에 따르면 식물성 식용유의 가격 급등은 원료인 유채씨, 종려, 콩, 해바라기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발되었다. 종려, 콩, 해바라기는 세계적 수입 수요 회복, 특히 식용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인도의

수요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원유 가격 상승 또한 식물성 식용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콩기름과 해바라기유 가격은 2020년 5월부터 상승 추세였으나 현재는 각각 톤당 1,473 달러, 1,381 달러로, 6개월 전 가격에 비해 하락했다.

올리브유 가격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1차 원자재 가격에 따르면, 9월 30일 시점 버진 올리브유 가격은 톤당 4,442 달러로, 7월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5일자

에콰도르 선망선단, 위치추적 정보 공개

GFW 웹사이트에서 추적 가능

선단 위치정보 공개 시스템인 Global Fishing Watch(GFW)를 통해 에콰도르 선망선단의 추적이 가능해졌다.

GFW는 2021년 10월부터 GFW 플랫폼 지도를 통해 에콰도르 국적 어선 700여 척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GFW는 비영리 해양 보존복원 단체 Oceana가 구글 및 비영리 환경 감시 단체인 SkyTruth와 협력하여 설립한 독립 비영리 단체이다.

에콰도르는 2019년 10월 EU 옐로카드 조치를 받았다. 이후 에콰도르는 옐로카드 조치 해제를 위

해 어업법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에콰도르와 체결한 협정의 일환으로, GFW는 항만국조치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GFW 추적 지도에서는 에콰도르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에 등록된 어떠한 업종의 어선도 전체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용자는 국가별로 선택하거나 특정 선박명을 입력해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18일자



日, 원양 가다랑어 어장 AI 예측 시험 진행 중 현재까지 예측 적중률 약 50%...통신비용, 어장 검증 등 과제

일본 시가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이이야마 마사아키(飯山将晃) 교수와 시즈오카현 수산해양기술연구소 자원해양과 우에하라 요헤이(上原陽平) 선임연구원은 시즈오카현을 중심으로 원양 가다랑어 채낚기선 13척을 대상으로 AI에 따른 어장 예측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베테랑 어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AI의 예측 적중률은 현재까지 약 50%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예측이 아무리 정확해도 30% 미만임을 감안하면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올해 8월부터 매주 수요일 홋카이도 동쪽 2,000km 근해에서 조업하는 가다랑어 대형선에 3일 후의 어장 예측을 시험 전달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해양수산 AI 기술(FishTech)을 확립해, 자원보호와 경제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지속가능 어업 모델의 창출이 목표이다.

이이야마 교수는 수온, 유속, 염분농도, 조석 등의 해상 정보를 AI에 학습시킨 어획 데이터를 조합해 어

장 예측 및 선택 시스템을 구현했다.

현재의 과제는 통신비용과 어장 예측의 검증이다. 어장 예측 전송은 위성회선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높아 주 1회 전송으로 횟수를 지정하고 있다. 이후 위성통신기술이 발전해 통신비용이 절감된다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장 예측 검증의 경우, 원양어업이기 때문에 어장에 직접 가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조업 수일 후 어업자로부터 어획 장소나 어획량 등의 조업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예측한 어장에서 조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장의 검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한 어장의 가다랑어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이이야마 교수는 해당 시스템이 데이터만 있다면 가다랑어가 아닌 다른 어종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0월 18일자

이란, 참치캔 생산 급증 이란 내 참치캔 공장 130개 가동 중

이란 참치캔 생산량이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다.

이란 통조림산업 신디케이트 총장 Mohammad Mir-Razavi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약 130개의 참치캔 공장이 가동 중이다. Mir-Razavi는 해당 공장들이 높은 참치 원어 비용 때문에 통상 용량보다 적게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참치캔 생산에 사용되는 참치의 약 60%(5만 톤)가 수입산이다. Mir-Razavi는 『수입 원어는 대

부분 중국산이지만 (미국의) 제재 이전에는 태국, 스페인, 한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했다』라고 밝혔다.

‘20년 3월~’21년 3월 동안 이란 참치캔 수출은 약 100% 증가했다. 주요 구매국은 이라크, 아르메니아, 페르시아만 연안국,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등이다.

이란은 인도양 조업 참치선단을 보유 중이다. IOTC에 따르면 인도양 조업 이란 국적선은 자망 1,295척, 연승 5척, 트롤 2척, 선망 8척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19일자



스페인 OPAGAC, 3대양 참치 MSC 인증 근접 중서부태평양 3개종, 인도양 가다랑어, 대서양·동부태평양 황다랑어

3대양(대서양, 인도양,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동시 MSC 인증을 추진 중인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 산자연합(OPAGAC)의 MSC 인증 취득이 가까워졌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인 Lloyd's Register는 인도양 및 중서부태평양 어업(FAD 및 스쿨 조업)의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중서부태평양 어업은 3개 어종 모두, 인도양 어업은 가다랑어에 대해서만 MSC 표준을 만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인도양에서 남획되고 있는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OPAGAC가 인증을 부여받으면, 스페인 대형냉동 참치협회(AGAC)에 소속되어 있고 스페인의 사회적 책임 로고인 APR 표준에 따라 인증된 모든 선단은 MSC 인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AGAC는 OPAGAC 소속의 스페인 어선 선주들과 에콰도르, 세이셸, 엘살바도르 등 연안국에 투자한 선주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OPAGAC-AGAC 소속 선박

은 스페인 국적선 및 해외 국적선 총 48척이다.

인도양 인증에는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 마요트 등의 EEZ가 포함된 FAO 51, 57 해구의 가다랑어 FAD 및 스쿨 조업이 해당된다.

중서부태평양의 경우 인증을 받은 선망선단은 키리바시, 쿡아일랜드, 투발루, 토켈라우 EEZ가 포함된 FAO 71 해구 스쿨 조업이다.

반면, 동부 태평양과 대서양 참치 어업(FAD 및 스쿨 조업) 평가에 대한 최종보고서에는 두 수역의 황다랑어 어업이 MSC 표준에 만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눈다랑어와 가다랑어는 최소 요구 점수에 미달했다.

대서양 가다랑어와 눈다랑어는 제1원칙 어획통제규칙에서 각각 평균 72.5점, 60점 미만으로 커트라인 8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동부 태평양 가다랑어와 눈다랑어는 제1원칙에서 각각 평균 73.3점, 70점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1, 11월 4일자

스페인 Calvo 그룹, 지속가능한 참치 조달 발표 2025년까지 100% 달성, MSC 인증 참치는 1% 미만

Spanish Calvo 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참치를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출처에서 조달할 것을 약속했다.

Calvo 그룹은 해양관리협의회(MSC), 어업개선 프로젝트(FIP), 스페인 사회적 책임 로고(APR) 인증 어업과 FAD 프리, 낚시를 통해 잡은 참치를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Calvo 그룹의 2020년 참치 공급량 중 MSC 인

증 참치는 0.84%에 불과하다. 2019년 0.5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A 또는 B 점수를 받은 FIP 참치는 2019년 비중 37.11%에서 8.62%p 증가한 45.73%를 기록했다. APR 참치는 1% 증가한 38.29%였다.

또한 4.57%는 FAD 프리, 10.46%는 영세어업으로 잡은 참치를 사용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0일자



영국 2020년 참치캔 수입 통계 발표

에콰도르산 참치캔 수입 2배 증가

2020년 영국이 수입한 참치캔 물량은 10만 3,474 톤으로, 2019년 대비 4% 감소했다.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판매 상황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연말까지 수요가 급감한 EU, 미국 등의 추이와 비슷하다.

2020년은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한 첫 해이다. 이로 인해 EU 국가들이 영국에 수출하는 참치캔 물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스페인 외에 수출량이 크게 감소한 국가는 없었다.

영국은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참치캔을 수입했다.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2만 4,128톤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증가했다. 톤당 평균 가격은 2,506 달러로 4% 하락했다. 이는 영국이 참치캔을 수입한 국가들의 평

균 톤당 가격 중 파푸아뉴기니(톤당 2,004 달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해 EU가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참치캔의 톤당 평균 가격은 4,258 달러였다.

영국의 세이셸산·모리셔스산 참치캔 수입량은 각각 6%, 26% 감소한 1만 3,147톤, 1만 1,404톤으로 에콰도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EU 국가들로부터의 참치캔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매우 적게 감소했다. 그러나 영국의 스페인산 참치캔 수입량은 33%나 감소했다. 필리핀산 수입량은 18%나 감소한 9,164톤으로, 지난 3년간 최저치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2일자



프랑스 연승선 3척, 바누아투서 IUU 조업

무허가 조업 행위 적발

프랑스 참치 연승선 3척이 바누아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바누아투 총리 Bob Loughman에 의해 기소되었다. Loughman 총리는 바누아투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10월부터 바누아투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 연승선 3척은 모두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국적선이며 프랑스 어업회사 소유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8일자



타이유니온 3분기 참치캔 매출액 감소 매출 증가했으나 순이익 감소

타이유니온의 2021년 3분기 매출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약 6% 감소했다. 참치캔 부문의 실적은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했다.

타이유니온의 순이익은 5,916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 중단, 노동력 감소 및 공동 투자 손실 등이 영향을 끼쳤다.

전반적인 판매 수입은 2021년 3분기에 2.2% 증가한 1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냉동·냉장 수산물 판매, 애완동물 제품, 부가가치 사업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3개 핵심 분야는 2019년 동기 대비 11.6% 성장했다.

타이유니온에 따르면 참치캔이 주를 이루는 상온 수산식품 판매수입은 4억 5,700만 달러로 지난해 대

비 8% 감소했다. 해당 판매수입의 61%는 브랜드 제품 판매에서 나왔다. 판매 수량은 8만 5,865톤으로 지난해 대비 12.5% 감소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참치캔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의 구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태국의 3분기 전체 참치캔 생산량은 26% 감소했다. 타이유니온이 태국 최대 가공업체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 셈이다. 태국의 참치캔 미국 수출량은 40% 이상 감소했다.

올해 9월 30일까지 타이유니온의 총 매출은 31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순이익은 1억 8,300만 달러로 27%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9일자

범블비, 건강 스낵 키트에 새로운 맛 추가 참치, 크래커, 카라멜 구성

범블비 씨푸드는 Protein on the Run 건강 스낵 키트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세 가지 새로운 맛의 MSC 참치를 추가했다.

Protein on the Run 포장은 열기 쉬운 박스로 변경되었으며 Gourmet Tuna라는 라벨이 붙여졌다. 내용물은 레몬, 마일드 할라피뇨, 블랙페퍼 3가지 맛 중 하나의 올리브 오일 MSC 참치캔 77g과 크래커 3개, 포크, 카라멜 1개로 구성되어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30일자





페루 대왕오징어 가공·수출업체, 새로운 그룹 결성 지속가능성 개선 목적, WWF와 FIP 협약 체결

페루 대왕오징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17개 가공업체·수출업체가 대왕오징어 어장의 지속가능성 및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도모할 새로운 그룹을 출범시켰다.

CAPECAL이라는 이름의 해당 그룹은 10월 초 스페인 Vigo에서 개최된 어업 전시회 Conxemar에서 결성을 발표했다.

CAPECAL 회장 Gerardo Carrera는 CAPECAL이 어업 거버넌스 및 가치 사슬 측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자연보호기금(WWF)과 어업 개선프로그램(FIP)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Carrera 회장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대왕오징어 FIP에 참여하고 홍보할 필요성을 인식했

다고 말했다.

페루 대왕오징어 FIP 협정은 세계 최초의 종합 오징어 FIP이며, 참가자들은 향후 수년간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 취득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왕오징어 자원 지속가능성의 가장 큰 과제는 페루 EEZ를 벗어나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단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선단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에콰도르, 페루 EEZ에 무단 침입해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Seafoodsource, 2021년 10월 13일자

대왕오징어 어획량 감소·가격 하락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은 대폭 증가

오징어 가공식품에 쓰이는 대왕오징어의 일본 반입이 호전되었다. 어획 자체는 줄었으나,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페루 대왕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50만톤 가량이었으나 올해 25만~30만톤 가량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과 칠레의 어획량이 각각 평년 수준인 25만~30만톤, 6만~7만톤 가량으로 예상되나, 페루 어획량 감소로 인해, 전체 어획량은 60만톤 전후로 감소할 전망이다.

어획량 감소에도 국제 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내려가는 추세이다. 수요국인 중국이 코로나 감염 대책으로 검역 규제를 강화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가격 하락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가격도 하락해, 필렛은 kg당 200엔~200엔 전반, 지느러미(귀) 170~180엔 가량으로 최근 수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아르헨티나 200해리 내 공해의 중국, 대만, 한국 선단 어획량 합계는 50만~60만톤으로 지난해 어획량인 37만~38만톤에서 30% 이상 증가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0월 26일자



러시아 명태 자원 데이터, 급격한 어획 감소 경고

3년 이내 TAC 크게 감소할 가능성 다시 경고

러시아 연방해양수산연구소 태평양지부(TINRO)의 과학자들은 북부 오호츠크해에서 명태 개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업적으로 어획되는 2014~2016년에 태어난 세대의 개체수는 평균적인 장기 수치와 일치한다. 하지만 2017~2020 세대의 개체수는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TINRO 과학자들이 2017~2019 세대의 명태 개체수 부족으로 인해 2023년부터 오호츠크해 명태 자원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원량 감소가 러시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어장인 오호츠크해의 명태 자원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할만한 수준(alarmed)'이라고 말했다.

TINRO 연구자들은 2024년 조업 시즌부터 어획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TAC)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러시아명태생산자협회(PCA)는 명태 쿼터가 2024년까지 15~20% 감소하여 160~165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0월 29일자

8월 기준 러시아 대중국 수산물 수출 72% 감소

중국 수출시장 붕괴 영향, 한국 수출 48% 증가

러시아의 수산물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반면, 한국 수출은 급증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수산물 수출 시장이었다. 러시아는 2020년 중국에 100만톤 이상의 수산물을 수출했다. 이 중 명태는 전체 수산물 수출량의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0년 말 중국이 수입 수산물 포장에서 COVID-19가 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이후, 수입 수산물 검사 및 규제가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러시아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4억 4,2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고, 수출량은 83% 감소한 16만톤을 기록했다. 2021년 첫 8개월 동안 러시아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72% 감소한 21만

4,000톤을 기록했다.

현재 러시아의 최대 수산물 수출 시장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2021년 상반기 동안 45만 9,200톤(지난해 대비 48% 증가)을 수출했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다시 수출되었거나 대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러시아 관료 및 수산 기업들의 노력이 좌절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해외 시장 및 국내 시장 개척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지난 8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등에서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과잉 생산으로 인해 고심 중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1월 9일자



GAPP, 연례회의서 실적 보고 및 내년 목표 논의 지속가능성 메시지 확립 목표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는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명태 어업 성과를 논의하고 2021~2022년 조직 목표를 개괄적으로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알래스카 어업은 공급망 붕괴, 식품 소비 감소,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명태 어획량은 쿼터인 140만 톤에 7만톤이나 못 미치는 133만톤을 기록했다.

베링해 A시즌 어획량은 쿼터 60만 2,910톤보다 적은 59만 1,056톤을 기록했다. B시즌에는 10월 16일 현재 쿼터 73만 7,000톤에 A시즌 미소진 쿼터의 일부인 1,540톤을 추가로 잡아, 총 73만 8,540톤이 어획되었다.

한편, 미국 어업계는 “알래스카 명태”라는 명칭을 미국 양륙 어획물에만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고, 이로 인해 2020년 미국 내 명태 소비량 중 알래스카산 비중이 45.3%에서 60.7%로 증가했다.

알래스카 어획량은 2020년 대비 6,400톤 가량 많은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즌이 끝날 무렵 알래스카만(GOA) 어획량은 9만 5,464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링해/알류산열도(BSAI) 어획량은 132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GOA 어획량은 9만 9,979톤, BSAI 어획량은 131만톤이었다.

GAPP Rogness 고문은 올해 미국 1인당 명태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산 연육 소비가 얼마나 안정적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의 연사들은 많은 소비자들이 명태 연육을 제철 대용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GAPP는 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단백질이 풍부한 천연 수산물이라는 메시지 강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명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조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0월 28일자

中 운임 폭등으로 더블프로즌 명태 블록 가격 급등 싱글프로즌-더블프로즌 간 가격 차이 거의 없어

중국 컨테이너 비용 폭등으로 인해 더블프로즌(러시아에서 냉동 상태로 중국에 운송되어 가공되는 2회 냉동 제품) 명태 블록의 유럽 운송 가격이 싱글프로즌(1회 냉동 과정을 거친 제품) 명태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싱글프로즌-더블프로즌 명태 가격 차이는 2020년 톤당 최대 1,000 달러 수준이었으나, 한 소식통은 현재 가격차가 톤당 100 달러 가량이며, 때때로

동등한 수준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명태 블록 가격 상승은 2020년부터 예상되었으나, 더블프로즌의 가격 상승은 싱글프로즌 상승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더블프로즌 블록의 FOB 가격은 톤당 3,200~3,300 달러이고 CFR 가격은 톤당 3,800~3,900 달러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2일자



러시아 44주차 냉동 어류 가격

현물가격 다소 하락세

러시아의 2021년 44주차 냉동 어류 현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러시아 극동지역 명태 현물가격은 kg당 55~70 루블에서 50~65 루블로 하락했다. 태평양청어와 태평양대구 가격은 각각 kg당 50~70 루블, 150~165 루블로 지난주 가격과 동일했다.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대구 현물가격은 kg당 210~240 루블로 지난주 가격과 동일했다. 해덕대구

와 청어 현물가격은 각각 지난주 kg당 125~135 루블, 70~110 루블이었으나 현재는 120~130 루블, 65~100 루블로 하락했다.

러시아 중앙지역의 대서양 고등어와 명태 가격은 각각 kg당 140~150 루블, 110~120 루블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5일자

RFC-日 다이사이 장기 연육 공급 계약 체결

내년 최대 2만톤 공급

Russian Fishery Company(RFC)는 일본수산사의 계열사인 (주)다이사이(大水)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RFC는 내년에 최대 2만톤의 연육 제품을 일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RFC의 오랜 마케팅 파트너인 Pacific Rim

Group은 이러한 계약에 있어 전략적 공급 및 유통업체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 수입업체들은 알래스카 명태의 가격 상승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9일자

美 Trident, 명태 선상가공 트롤선 매입

알래스카 명태 전체 TAC의 2% 보유 어선

미국 Trident Seafood사가 추진 중인 미국 Aleutian Spray Fisheries(ASF)사의 선상가공 트롤선 Starbound호 및 어획 쿼터 매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해졌다.

Starbound호는 전장 91m로 알래스카 선단에서 최고의 어선 중 하나로 여겨진다. Starbound호에

부여된 쿼터는 알래스카 명태 전체 TAC의 2%를 약간 넘는다. 2021년에는 약 3만~3만 5,000톤의 쿼터를 부여받았다. 이 어선의 가치는 2억 5,000만 달러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10월 14일자



日 공치 가격, 높은 수준 유지

10월 어획량 부진으로 고가 지속

일본 연근해 공치 어업은 10월 중순을 지나도 어획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에 따르면, 현재 공치 어장은 대형선으로 1.5일 정도 소요되는 홋카이도 네무로·하나사키 동남동쪽 400km 전후의 공해에서 형성되고 있다. 어황은 좋지 않은 편으로, 10월 18일 어획량은 대형선의 경우 어획량이 많은 배가 15톤, 평균(40척)적으로 7.2톤, 소형선 평균(20척) 4.8톤에 그쳤다.

JAFIC 집계에 따르면 10월 전국 1일 어획량은 많은 날이 600톤대, 그 외에는 300~400톤, 심지어 제로(0)인 날도 다수였다. 지난해는 10월 19일, 20일 2일 연속으로 1,000톤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한 적이 있으나, 올해는 여전히 1,000톤 이상을 기록한 날이 없다. 10월 현 시점의 어획 상황은 사상 최저였던 지난해보다도 저조한 수준이다.

8월~10월 19일까지의 일본 공치 어획량 누계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한 8,130톤이다.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많지만, 어획이 간헐적이고 일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 부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JAFIC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공치 10월 상순 평균 가격은 kg당 533 엔으로, 9월 하순 가격인 541엔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 10월 19일 가격은 821엔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중순 가격인 535엔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이다.

현지 가공업자에 따르면 올해 어획되는 공치는 개체당 120~140g이 주를 이루고, 이따금 200g급도 있을 정도로 지난해보다 어체의 상태가 좋다. 이로 인해 높아진 양판점 수요가 적은 어획량과 겹쳐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0월 21일자

日, 냉동 공치 7월 말 재고량 발표

지난해보다 1개월 일찍 7,000톤 미만 기록

일본 농림수산업성 통계부가 발표한 냉동수산물 재고량 조사(2021년 7월분)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일본 냉동 공치 재고는 6,977톤(지난해 동기 대비 21% 감소)으로, 지난해보다 1개월 일찍 7,000톤 미만을 기록했다. 재고 내역은 산지 5,683톤, 소비지 1,294톤이다. 출고 추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으나, 수입량이 40% 감소해 재고 보충이 늦어진 점이 주된 원인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타국의 공치 어획이 모두 저조하다는 점 또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월간 입고량, 출고량은 각각 782톤(18% 감소), 1,609톤(30% 감소)을 기록했다.

한편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냉동 공치 수입은 21년 7, 8월 들어 4~50% 감소했다. 8월 수입량은 한국, 중국, 대만 3개국을 합쳐 137톤(46% 감소)에 불과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0월 14일자



WTO 수산보조금 협상, 합의 문서안 제시돼

11월 30일 합의 타결 목표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 보조금 협상이 오는 11월 30일 시작되는 장관회의 합의 타결을 위해 과감한 조정에 들어갔다.

논의를 주재하는 WTO 협상 그룹의 Santiago Wills 의장은 각국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합의 문서안을 제시했다. Wills 의장은 『이 안을 최종안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하고 싶다』라며 각국에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합의안은 '과잉 설비나 남획으로 이어지는 수산업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원칙을 다시 명기했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출 인정'이라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한편,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까지의 이행 기간을

도입했다. 이 기간을 두고 수 년 정도로 하길 원하는 선진국과 최대 25년까지 설정하길 원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빠른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저개발국(LDC)은 보조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IUU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폐지와 함께, 이를 조장하는 행위도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 어선의 강제노동에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Wills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거액의 수산보조금을 지출하는 국가들은 합의가 타결될 경우 대폭 삭감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1월 10일자

식물기반 참치 대체식품, 세계적으로 출시 중

브라질,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 출시

식물기반 참치 대체식품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 신제품이 출시되었으며, 네슬레(Nestlé) 또한 자사 브랜드 Vuno를 앞세워 이스라엘 시장에 발판을 마련했다.

브라질 식물성 육류 생산업체인 Future Farm이 자사 첫 수산물 대체식품을 발표했다. Future Tvna라는 해당 제품은 캔 참치와 비슷한 외양과 맛을 지닌 것으로 홍보되고 있다. Future Farm 설립자 Marcos Leta는 해당 제품이 브라질에서 실제 참치캔과 함께 진열되어 판매될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Tvna는 진공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방부제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콩, 완두콩, 병아리콩 단백질과 올리브유, 무, 그리고 미세조류 기름으로 만들어져 실제 참치캔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이 된다. 해당 제품은 100g당 단백질 15g, 오메가-3 183g, 콜레스테롤 0mg을 함유하고 있다.

한편, 네슬레는 최근 자회사 Osem과 손잡고 자사 식물기반 참치 대체식품 브랜드 Vuno를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시켰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0월 27일자



FAO, 어업 부문의 기후 변화 적응 중요성 강조 지구 온난화가 세계 어업에 끼치는 영향 설명

현재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제26차 UN 기후변화회의에서, UN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양식 부문 책임자 Manuel Barange는 지구 온난화가 세계 어업에 끼치는 세 가지 영향 및 수산 분야의 적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영향은 지구 기온과 총생산성 간 상관관계이다. Barange는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열의 90%는 바다에 축적되며, 이로 인한 해양 온난화로 인해 지난 80년간 해양의 최대 지속가능 생산성이 약 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난화의 결과로 2050년까지 해양 생산성이 12%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해양 생물 재배치이다. Barange에 따르면 1950년 이후 해수면 표층에 서식하는 종은 10년마다 51.5km씩 극지방 쪽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기후 변화 영향을 덜 받는 해저 서식 종은 10년마다 약 29km씩 이동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러한 해양 생물의 중대한 재배치가 예상된다.

세 번째 주요 변화는 기온이나 빛의 주기 변화로

인해 해양 과정(marine process)에 불일치가 발생해 특정한 종의 계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령 특정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동면이 기후 변화로 인해 일찍 끝난다면, 1년 중 특정 시기에 해당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기 위해 내유하는 어종이 이를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Barange는 이 세 가지 영향이 가치 사슬을 단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지역의 관리 시스템 부족(예: 영국 수역에 나타나는 참다랑어 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arange는 정부 간 양자합의나 삼자합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다국적 어업 쿼터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의 중요성이 향후 몇 년 동안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종의 서식지 변화로 인한 수산업 환경의 적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단지 관리시스템을 조정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에만 그치지 않고 가치 사슬을 따르는 긍정적 적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5일자

러시아 2021년 41주차 부어 어획량 19만 1,000톤 고등어·꽁치 누계 4만 9,000톤, 464톤

러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19일 시점 부어(pelagic) 어획량 누계는 19만 1,000톤이다. 이 중 고등어는 4만 9,000톤, 정어리 14만 2,000톤, 꽁치 464톤이다. 정어리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만 9,000톤 적지만 고등어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배 증가했다.

러시아 정부의 기상 예보로 미루어 볼 때, 차주는

어획량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고등어 어획량은 근시일 내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 선단 24척이 고등어·정어리 조업 중이며, 3척이 꽁치 어장에서 조업 중이다. 기상 조건에 따라, 유효 조업은 5~6주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0월 21일자



전자상거래, 2025년 세계 수산물 시장 36% 점유 현재 28%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전체 사업의 36%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NSC 라틴아메리카 사무국장 Oystein Valanes는 최근 'Seafood Latin America' 세미나에서 『올해 전자상거래 판매가 전 세계 매출의 28%를 차지해, 2015년 대비 2배로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예상보다 3~4% 높은 성장치를 기록했다.

식품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로 치명타를 입은 후 냉동 수산물 분야를 좀 더 폭넓게 채택하며 재건 중으로, 그 중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디지털화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Valanes는 브라질에서 조사 대상자의 16%가 온라인으로 수산물을 구입한다고 답했으며, 독일, 일

본, 프랑스 등 국가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Valanes는 브라질이 남미 국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며, 브라질 대도시의 온라인 판매가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통조림 브랜드 Robinson Crusoe사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Mercado Livre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면서 올해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팬데믹 이전부터 온라인 수산물 판매 선두 국가였고, 온라인 앱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판매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과제는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수산물을 먹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Valanes는 지적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0월 22일자

美 '불법어업·강제노동 방지법' 하원 표결 추진 10월 13일 하원 위원회에서 추진 의결

지난 10월 13일 미 하원 천연자원 위원회는 불법어업 및 강제노동 방지법(Illegal Fishing and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제출된 법안은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SIMP) 대상을 모든 종으로 확대, 노동환경을 비롯한 SIMP 제출자료 요구량 증가, IUU 어업 및 인권침해 관련 수입품에 대한 감지 개선 등, 수산물 추적가능성 및 라벨 표시 요건 설정 등의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Garret Graves 하원의원은 중국, 러시아, 멕시코,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들의 불법조업이 용인되어왔으며 이 법률안이 수산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제 표결을 위해 미 하원으로 넘어간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0월 18일자



미국 수산물 물가 급상승, 연휴 매출은 흔들림 없어 10월 소매 물가 13~14% 상승

수산물 소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휴 시즌 수산물 매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미국 시장조사 기업 IRI와 210 Analytics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소매시장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3~14% 정도로, 9월의 7~8% 대비 더욱 상승했다. 210 Analytics 대표 Anne-Marie Roerink는 미국 수산물 물가 상승 추세가 육류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플랫폼 Datasembly의 신 지표인 식료품 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2.28%로, 지난 20년 미 농무부(USDA) 집계 평균을 넘어섰다. 신선 육류수산물 가격은 베이컨, 소시지 등의 가격 인상으로 3분기에 4.2% 상승했다.

물가 상승 및 공급망 약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휴철 매출 전망은 여전히 견고하다. 미국소매협회

(NRF)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미국 연휴철인 11~12월 총 지출액 전망은 8,434억~8,590억 달러로, 이전 기록을 8.5~10.5% 차이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Roerink는 미국 시장 공급망 붕괴로 인해 상점들이 소매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나, 현재 육류와 수산물 등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IRI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특히 8월과 9월에 온라인 식료품 쇼핑이 증가했고, 올해 전체 식료품 매출의 1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등 무점포 매출은 11~15% 증가해 총 2,183억~2,262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NRF는 전망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0월 28일자

미국 항만 병목 현상 여전

태평양 횡단 노선 운임 급증, 9월 중순 고점보다는 낮아

11월 첫째 주 기준 캘리포니아 San Pedro만에 73척의 컨테이너선이 정박하며 미국 수산물 주요 수입지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

알래스카 수산물의 주요 경로인 시애틀항의 올해 컨테이너 물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물량을 넘어섰다.

머스크사는 정체된 시애틀항을 알래스카-중국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태평양 북서부-중국 항로에 추가했다. MSC사는 Akinada Bridge선이 제공

하는 Eagle 서비스에서 시애틀 운송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했다. 머스크사의 Thomas Boyd 대변인은 모든 항구에서 대기 시간이 연장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항만 병목 현상으로 태평양 노선의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있지만 현물 운임은 여전히 9월 중순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편, 10월 장기 컨테이너 운임은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8일자



H&G 대구 가격 러시아-노르웨이 쿼터 삭감으로 상승 올해 쿼터 이월 가능 한도 상승도 영향

노르웨이-러시아 양국이 올해 쿼터 이월 가능 한도를 10%에서 15%로 늘리고 2022년 쿼터를 20% 삭감하며 H&G 대서양 대구 및 해덕대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수산물위원회(JNRFC)는 2022년 대구 총허용어획량(TAC)을 올해 대비 20% 삭감한 70만 8,480톤으로 결정했다. 바렌츠해 해덕 대구는 23% 삭감한 17만 8,532톤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대구 어획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40주차까지의 노르웨이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올해 쿼터 43만 2,881톤 중 30만 7,749톤을 어획했다. 12만 5,132톤을 남은 기간에 어획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5만 9,501톤을 어획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H&G 대구 1~2.5kg 사이즈의 경우 중국으로 배송되는 CFR 가격은 9월에 비해

약 200달러 상승한 톤당 4,300~4,350 달러이다.

소식통은 H&G 대구 가격이 9월에 톤당 약 200~300 달러 상승했다고 말했다. 500g~1kg 대구 가격은 현재 톤당 약 3,500~3,600 달러이며 1kg 초과는 약 4,000 달러라고 전했다.

EU의 러시아산 냉동 대구 수입 가격은 올해 초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39주차 EU에 수입된 러시아산 냉동 대구 가격은 kg당 평균 3.55 유로(4.87 달러)이다. 40주차는 4.05 유로를 기록했지만 296톤에 대한 가격으로 자료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대구 수출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노르웨이 40주차 FOB 기준 모든 사이즈의 냉동 대구를 평균한 가격은 kg당 34.84 크로네(4.14 달러)이다. 19주차 가격은 29.37 크로네였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1년 10월 19일자

Aker Biomarine, 크릴 조업 부진으로 수익 감소 한국, 미국 크릴오일 판매도 수익 부진에 영향

노르웨이 크릴 생산 업체인 Aker Biomarine은 저조한 조업과 한국, 미국에 대한 크릴오일 판매 감소로 인해 올해 3분기 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크릴 어획량은 7,195톤으로 지난해 동기 8,727톤에 비해 17% 감소했다. 연간 어획량 전망치는 4만~4만 5,000톤을 유지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8월과 9월 많은 날 동안 어장 상태(빙하)가 좋지 않아 조업이 어려웠다.

회사에 따르면 크릴 조업 시즌은 10월 첫째 주에 끝났지만 11월에 다시 시작된다.

Aker Biomarine의 3분기 매출액은 6,200만 달러로 11% 감소했다. 성분(ingredients) 사업 부문이 21% 감소했는데 크릴오일 브랜드 Superba의 매출이 42% 감소한 것이 컸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매 감소가 이러한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알려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0월 29일자



日 기업, 팡가시우스 연육 판매 개시

명태 수급 부족 대안으로 주목

닭고기, 메기 등의 가공·판매를 주로 하는 일본 기업 아키히로식품(주)(明弘食品(株))사가 팡가시우스(민물메기)를 사용한 연육 제품 「팡가연육(パンガスリミ)」의 판매를 개시했다.

제품 가격은 kg당 550 엔으로, 원료 대비 110%까지 가수율(수분 함량)을 높여도 탄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태 연육 표준품인 A급 상품 대비 20%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아키히로식품사의 요진 히로유키(明神宏幸) 사장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젤리강도(젤라틴의 물리적 특성이며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지표)는 명태 연육 고급품인 FA급에 가깝고, 제품 외견을 판단하는 백도(얼마나 하얀색에 가까운지 나타내는 수치)는 명태 연육 최고급품인 SA급과 동급 이상이라고 말했다. 팡가시우스는 본래 강도가 약한 연육에 어울리지 않으나, 해당 기업은 특허를 취득한 독자적인 가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담수어 특유의 냄새도 특수한 가공 기술로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

해 범용성을 높였다. 요진 사장은 메기를 원료로 만든 어묵에서 착안해 해당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은 1일 15톤 가량으로, 제품에 사용하는 팡가시우스는 ASC 인증을 받은 베트남 양식장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적고 자연산 대비 공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0월 28일자

나미비아, 민대구 TAC 4% 감소

2021/2022 어기 총 15만 4,000톤

나미비아 정부는 과학적 권고에 따라 2021/2022 어기 민대구 TAC를 15만 4,000톤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TAC인 16만톤보다 6,000톤 감소했다.

그러나 나미비아 수산청장 Annely Haiphene는 이것이 해양관리위원회(MSC) 기준에 따른 예

방적 조치이며, 자원 상태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미비아 2021/2022 민대구 어기는 11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3일자



노르웨이 43주 고등어·청어 어획량, 양호한 수준 올해 고등어 수출량 사상 최대

노르웨이의 전자 경매 업체인 Norges Sildesalgslag에 따르면, 2021년 43주차(~10월 25일) 고등어와 봄 산란(spring-spawning, NSS) 청어의 어획량은 양호한 수준이다.

고등어 어획량은 2만 4,600톤이며, 개체당 평균 중량은 455그램이다.

청어 어획량은 3만 4,672톤으로 꾸준히 좋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대부분인 2만 9,269톤은 노르웨이 Tromsø 북쪽에서 어획되었다. 개체당 평균 중량은 253g이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10월 노르웨이의 청어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NSC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고로 좋은 1개월 수출액이다. 봄 산란 청어 쿼터 증가와 가을 어기가 일찍 시작되었다는 점이 수출량 증대의 가장 큰 이유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 수요 증가 또한 영향을 미쳤다.

노르웨이 10월 청어 수출량은 약 5만톤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했고, 수출액은 약 6억 6,100만 크로네로 약 69% 증가했다. 최대 수출 시장은 이집트, 독일, 폴란드 등이다. 2021년 현재까지 노르웨이 청어 수출량은 10%, 수출액은 7% 증가했다.

노르웨이의 10월 고등어 수출량은 전년 대비 5만 6,900톤으로 23% 감소했고, 수출액은 8억 5,300만 크로네로 29% 감소했다. 최대 수출 시장은 일본, 대한민국, 중국 등이다.

올해 노르웨이 고등어 수출량은 47억 크로네로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던 2020년보다도 31% 증가했다. 수출량 또한 32만 1,000톤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의 10개월간(1~10월) 수출량 기록은 2014년의 31만 8,000톤이었다.

노르웨이 부어 판매조합에 따르면, 11월 6일 시점 이번 어기 고등어 어획 누계는 26만 7,927톤으로, 쿼터 소화율은 88%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5일자, 미나토신문, 2021년 11월 8일자

2021년 러시아 고등어 어획량, 2배 이상 증가 러시아 극동 부어 선단 17만 톤 어획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극동 부어(pelagic) 선단은 17만 1,000톤 이상을 양륙했다.

주 어종인 정어리 어획량은 13만 1,000톤으로, 2020년 대비 31% 감소했다. 그러나 고등어 어획량은 2배 이상인 4만톤을 기록했다. 태평양 오징어 어획량은 4,760톤, 태평양 꽁치 어획량은 약 450톤이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24척의 중·대형 러

시아 국적선이 정어리·고등어를 조업하고 있고, 다른 14척이 태평양 오징어 조업 중이며, 3척이 꽁치 조업 중이다.

정어리와 꽁치 조업은 러시아 남쿠릴열도 EEZ에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양륙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0월 14일자



필렛 공정에서 머리, 등뼈 파이프로 운반 작업 공정 편의성, 제품 신선도 개선

아이슬란드 북부에 있는 Samherji사의 가공공장은 약 6,500톤의 생선 머리와 등뼈를 건조해서 수출하고 있다. 최근 가공공장은 필렛 생산 구역과 건조 구역을 연결하는 펌프 시스템을 도입했다.

머리와 등뼈는 두 처리 영역이 약 300m 떨어져있어 기존에 지게차로 운반되었으나 이제 파이프를 따라 이동된다. 이에 따라 작업 공정 편의성, 제품 신선도가 개선되었다.

머리와 등뼈를 펌핑하는데 사용되는 물은 공장의 냉각 시스템에서 발생한 물을 사용한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1월 9일자



북동 대서양 청어·청대구·고등어 TAC 확정 국가별 할당에는 실패

영국, 노르웨이, 페로제도, 아이슬란드, 유럽 연합, 러시아는 2022년 북동 대서양 청어, 청대구, 고등어 어획량을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별 청어, 청대구, 고등어 쿼터 할당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쿼터 할당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2022

년 초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총 할당량은 청대구 75만 2,736톤(19%↓), 북동대서양 청어 59만 8,588톤(8%↓), 고등어 79만 4,920톤(7%↓)으로 설정되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1월 4일자



8월 페루 수산 부문 생산액 25% 감소 생산량 10만 7,000톤, 생산액 3,700만 달러

페루 정부 자료에 따르면, 페루 수산 부문 생산량은 10만 7,000톤으로 약 23.3% 감소했고, 생산액은 1억 4,880만 솔(약 3,700만 달러)로 25% 감소했다.

인간 직접 소비 어획량이 지난해 13만 9,300톤에서 10만 4,400톤, 액수로는 2억 1,230 솔에서 1억 4,780 솔로 약 25% 감소한 것이 감소의 주 원인이다.

8월 페루 냉동 수산물 제조용 어획량은 5만 8,5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만 2,700톤 감소했다. 이

는 주로 오징어(27.4% 감소), 민대구(1% 감소), 가리비(74.5% 감소) 등의 어획량 감소 때문이다.

8월 통조림용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00톤 감소한 8,100톤을 기록했다. 멸치, 가다랑어, 고등어 등의 어획량 감소가 주 원인이다.

신선 제품용 어획량 또한 13.4% 감소했다. 민대구(10.5% 감소), 가다랑어(58% 감소), 고등어(32.5% 감소) 감소가 주 원인이다. 그러나 신선 제품용 오징어 어획량은 29.7% 증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1월 8일자



에콰도르, 보호구역 면적 증대 '보존 스왑' 추진 갈라파고스 보호구역 늘리는 대가로 외채 일부 변제

에콰도르 정부가 갈라파고스 해양 보호구역 면적을 약 50% 늘리는 대가로 외채를 변제받는 '보존 스왑(Conservation swap)'을 추진 중이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현재의 13만 3,000km²에서 6만km² 더 늘어날 예정이다. 추

가된 보호구역 중 3만km²는 어업이 전면 금지되며, 나머지 3만km²는 연승어업이 허용된다. 이번 스왑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는 보존 조치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외채 일부를 탕감받게 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1월 3일자



파도의 말

이 해 인

늘 푸르게 살라 한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내 굵은 마음을 곧게
흰 모래를 밟으며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위를 바라보며
내 약한 마음을 든든하게

그리고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음
갈매기 처럼 춤추는 마음
늘 기쁘게 살라 한다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개최

우리나라 9척 입어신청 최종 승인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CCAMLR는 이번 회의에서 남극해 해양환경 및 생물 보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과학 조사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2021~2022년 어기 우리나라 어선 9척(이빨고기 6척, 크릴 3척)의 입어신청도 최종 승인됐다.

이와 함께, 남극 동남극해와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88.3해구 과학조사 재개를 승인받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과학조사가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에서는 남극이빨고기의 서식 범위, 위내용물 분석, 연령 추정 등의 과학조사를 12월 1일부터 3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년(2018~2020)간 원양업체·대학·수산과학원은 조사·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및 협업을 통해 남극이빨고기의 생태학적 정보(성숙체장, 성숙연령 등) 등을 과학적으로 구명한 바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남극이빨고기의 남획 방지를 위한 예방적 어획한계량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극이빨고기는 남극해 깊은 곳(500~2000m)에 서식하는 어종이며, 크기는 2m내외, 수명은 3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가의 식재료로 인식되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어획한 물량은 대부분 미국(스테이크용)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場) 열리다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협력의 내일을 준비하는 해양수산 ODA’라는 주제 아래, 국제개발 협력의 전략적 확대가 필요한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 세션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ODA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와 연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산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는 다자 협력 활용방안,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 해양수산 ODA의 당면과제와 협력방향 등을 논의되었다.

아울러,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주한 페루 대사, 주한 필리핀 대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경제투자통상자문 등 실제 수여국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여 수원국의 수요와 권역별 현안에 적합한 ODA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 받는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1일(목)부터 11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별표 10,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년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

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하고,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하여,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차 추진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월)부터 12월 5일(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 도매시장 3개)의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하였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

(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총 25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 조성

하반기 150억 원 규모 수산일반펀드 추가 결성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5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105억 원 규모로 수산벤처창업펀드 ‘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 투자조합’을 결성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50억 원 규모의 수산일반펀드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를 결성하여 수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해 왔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 출자하여 결성되는 수산펀드(자펀드)는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식품, 바이오, 기자재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수산경영체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새로 조성된 2개 펀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5개, 2,28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가 결성되어 총 1,468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하였다.

특히, 수산분야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작한 ‘수산벤처창업펀드’는 작년에 조성된 2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조성하게 되었다. 이 펀드는 수산분야 전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수산일반펀드와는 달리, 벤처·창업기업, 신기술 활용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펀드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은 농업정책보협금융원 누리집(www.apfs.kr)에 게시된 수산펀드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직접 투자문의를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운용사 대상 사업설명회 등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호 전 의원,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해운재건 5개년, 수산혁신 2030 성공 앞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호 전 의원(수산학박사·해양기술사)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과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을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완도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농어촌정책자문위원장과 해양수산특위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에서 학부 및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공직자 출신이다.

현재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고문, 4-H본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운재건 5개년, 수산혁신2030 등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민주당내외에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검직)
		박설진 차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 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품치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김민재 사원	589-1620	기획홍보지원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 수산 협력 센터 (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 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인사, 행정, 정보조사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정수진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6 044-868-7838	ODA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관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9호
발행처 :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인 : 윤명길
편집인 : 윤명길

발행 : 2021년 11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동조원용 참치조업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듬뿍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체수용 생선으로 제격



꽁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 www.kosfa.org |